Weekly 공감
더 큰 대한민국
No.63
2010.06.02/09
gonggam.korea.kr
학교가 바뀐다
교육이 살아난다
중점기획 천안함 사태 이후를 준비한다
절대 놓쳐선 안 될 남아공월드컵 명승부
보수와 진보의 '맞짱 토론'

녹색 성장! 녹색 강국! 더 큰 대한민국!

우리는 녹색선진국으로 가는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 녹색선진국을 향한 녹색에너지의 개발 -

우리 모두의 정성어린 손길이 필요합니다.

2010년 6월 5일은

제15회 환경의 날입니다

www.me.go.kr

창의성·인성 갖춘 인재 공교육으로 길러낸다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교육은 사람을 기르는 일이다.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은 시대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 우리는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 탈산업 사회, 글로벌 사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21세기 사회에 살고 있다. 이는 산업화 사회이던 20세기와는 크게 다르다. 산업화 사회에서는 많은 것을 단지 알기만 해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크게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한마디로 '창의적 인재'다. 어느 학자의 말대로 창의적 인재는 '새롭고 뜻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진 인재다.

또한 21세기 사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네트워크 사회다.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창의성만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배려를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러한 인재는 정답 찾기 식의 획일적 교육과 경쟁을 강조하는 학교교육에서는 길러지기 어렵다.

정부는 창의와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학교제도와 그 운영체제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자율과 다양', '경쟁과 책무', '배려와 지원'을 기조로 한 교육정책의 추진과 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교, 자율형 사립고 등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들은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다. 아울러 점수 위주의 선발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적 능력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도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학생들에게 창의와 인성의 기반이 되는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의 공개는 국가와 학교의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수레바퀴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장학제도는 가정의 경제력에 의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극복함으로써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교육정책의 성공은 우수한 정책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실천하는 교원, 교육 행정가 등 학교 관계자의 의식과 역량이 중요하다. 교원들은 학생들을 창의적이면서도 공동체 의식을 지닌 인재로 기르기 위한 역량을 길러야 한다. 교육 행정가들은 학교를 좀 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장기적 계획 아래 교원과 교육 행정가들의 의식과 역량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의 문화를 바꾸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G

Weekly
2010.06.02/06.09
No.63(통권 164호)

Contents

표지 이야기

학교는 즐거운 곳?
주입식 교육 대신 창의교육을 뿌리내리고, 학교의 형태와 운영을 자율화하고, 교사의 행정업무를 덜어 수업에 전념케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서울 창문여고 정원 선생님(과학 담당)과 학생들이 교정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 〈Weekly 공감〉 63호는 2010년 6월 2일·9일자 합본호입니다. 64호는 6월 16일자로 발간됩니다.

32

14

20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6.02 / 06.09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 획 특 집

달라지는 학교교육 '무한상상 인재' 만든다

지금 한국 교육계는 틀을 깨는 실험 중입니다.
학교는 기존 교육과정과 경영방식을 벗어나 다양해지고,
학생은 특색 있는 학교와 교과과정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교사는 능력과 개성에 따라 공모교장, 수석교사,
우수교사, 인턴교사로 역할을 나눠 '잘 운영하고,
잘 가르치는 일'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 모델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쯤 세상에는 '창조적 괴짜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기존 학교교육의 틀을 깨는 교육실험으로
미래 세상의 틀까지 바꿀 무한상상 인재들을
더 많이 길러내겠습니다.

01 **Reader & Leader**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32 **총론**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산다
34 다양한 교육이 '창의 인재' 만든다
38 내년도부터 교육과정 어떻게 바뀌나
42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최고' 선생님
46 수업 전념하게 행정업무 확 줄인다
48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로 달라진 교육 현장
50 지역교육청 '교육지원' 기능 대폭 강화
52 **인터뷰** 이군현 의원
"창의적 인재, 학교 자율에 맡겨야"

60

중점기획 천안함 사태 그 후
08 이 대통령 대국민담화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군사도발"
10 北에 책임 확실히 묻고 재발 막아야
13 국민원로회의 "국론 결집 시급하다"
14 국제사회 '北 고통스러운 돈줄 죄기' 공조
16 中 원자바오 총리 방한… 한중 정상회담

04 **공감 라운지** 사진 속 아름다운 문화유산 공모
18 **현장**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토론회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의 기본가치"
20 **포커스** 6월 9일 2차 발사… 날아라, 나로호!
22 **과학 뉴스** 세계사이언스파크 총회 대전서 열려
24 **남아공월드컵** 이 경기만은 놓치지 말자
28 **지상 전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독도사랑' 사진전

54 **교육 정보** 달라지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56 **이 사람** 경찰 실화만화 〈뽈스토리〉 출간한 강현주 경장
57 국방부에 100억 쾌척한 김용철 씨
58 **정책 공감** 출산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뱅크' 확대
60 **화보** '최지우, 내 마음의 아프리카' 사진전
62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이 달의 도서
63 **공감 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64 **문화 공감** 한일 수교 45주년 기념 〈화합&평화 콘서트〉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62호(5월 26일자) 기획특집 '천안함 사태 진실을 말한다'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한반도 안보 위한 공조체제 확립돼야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에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만 조사해서 발표했다면 다른 나라들이 의심과 불신을 가졌겠지만, 여러 나라가 참여해 나온 결과인 만큼 신뢰와 공감이 갑니다. 침몰 원인이 북한의 중어뢰 공격으로 밝혀진 이상 국제평화와 한반도 안보를 위해 현명하고 신속한 공조체제가 확립돼야 할 것입니다."_우향화

"천안함 사태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Q&A 형식으로 풀이해준 기사는 특히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추진기 프로펠러와 구동축 사이에 파란색으로 '1번'이라고 쓰여 있는 것만으로 북한제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논란에 대해 어뢰 조립과 정비,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식별하기 쉽도록 쓴 것이며, 과거 발견된 북한의 훈련용 어뢰에도 '4호'라고 쓰인 한글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등 사건 관련 주요한 쟁점들을 잘 파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_배지형

"이명박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한 기사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천안함 사태의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단호한 대응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10년 동안 어렵사리 쌓아온 남북 평화체제의 중요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신중한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_왕춘옥

"46명의 젊은 장병들이 차디찬 서해에 잠들어버린 이유가 북한의 군사적 공격 때문이라니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란 것이 밝혀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악화된 분위기입니다. 다행히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가 천안함 사태에 공동 대응해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이루기로 한 만큼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악화되기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회복되길 바랍니다."_조경영

62호 문화 '박수근 45주기 기념전'을 읽고 독자가 보낸 의견입니다.

"우리네 정서를 잘 표현하는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제까지 본 박 화백의 전시회 중 작품이 가장 많았고 또 미공개 작품도 볼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특히 큼지막하게 〈나무와 여인〉 등 좋은 작품들을 게재해줘서 두고두고 오래 볼 수 있도록 스크랩해뒀습니다. 좋은 미술 전시 기사가 많았으면 합니다."_손진숙

국제조사단이 밝힌
천안함 사태의 진실

화폭 가득 펼쳐진
그 시절의 초상

알립니다

사진 속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공모합니다

문화재청은 국민 모두가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진들을 공모한다.

응모 자격 | 국민 누구나
공모 일정 | 6월 25일까지
공모 대상 | 4대 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및 종묘
공모 분야 | 문화재 사진 혹은 문화재와 함께한 추억의 사진
응모 방법 | 문화재 사진은 온라인 접수, 문화재와 함께한 추억의 사진은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접수(대전 서구 선사로 139 문화재청 대변인실), 사진 촬영 일시 및 장소와 문화재에 대한 간단한 사진설명 첨부
시상 내용 | 금상, 은상, 동상 등 총 31편과 참가상 20편
수상작 발표 | 7월 16일 문화재청 홈페이지, 2010 문화유산 공모전 사이트 게재. 수상작은 2010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축제(9월 10~12일) 때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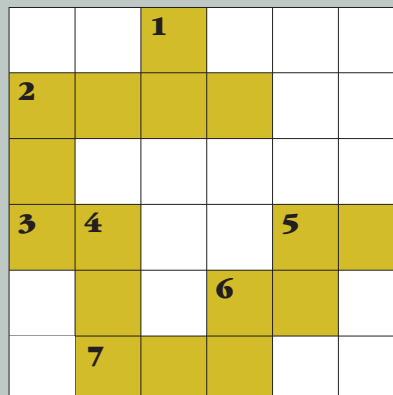
문화재청 대변인실 Tel **042-481-4675**
문화재청 cha.go.kr 2010 문화유산 공모전 cha.go.kr/contest

예쁜 컬러 누에, 왕귀뚜라미… 신기한 곤충 보러 오세요

주말이나 휴일, 아이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선사하고 싶다면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자. 농촌진흥청은 6월 30일까지 농업과학관에서 '누에와 곤충 체험 전시회'를 개최한다. 어린이 관람객들은 직접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거나, 누에와 뽕잎으로 만든 기능성 식품과 누에고치 공예품 등을 구경할 수 있다.

누에 외에도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로 인공 사육에 성공한 왕귀뚜라미, 물방개, 방울벌레, 큰주홍부전나비 등 다양하고 신비한 곤충이 실물로 전시된다. 곤충의 생육 과정과 특성, 관상용 곤충 사육기술 등을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신태철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전시회는 어린이들이 신비로운 곤충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학습 기회"라며 "특히 도시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 우리 농업과 곤충을 올바로 이해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Tel **031-299-2435**

공감 퍼즐

빈칸의 답을 연락처와 함께 6월 9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 로

2. 대기 중의 수증기, 이산화탄소, 오존 등이 지표에서 우주 공간으로 향하는 적외선 복사를 대부분 흡수해 지표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작용. 빛은 받아들이고 열은 내보내지 않는 온실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죠.
3.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움. 또는 그 마음. "어머니의 OO한 미소"
5. 필요한 비용을 미리 헤아려 계산함.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 또는 그 비용.
6.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줄여 이르는 말.
7.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만들어 왜군을 무찌르는 데 크게 이바지한 거북 모양의 배.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죠.

세 로

1. 효모나 세균 따위의 미생물이 유기 화합물을 분해해 알코올류, 유기산류, 이산화탄소 따위를 생기게 하는 작용. 된장과 고추장은 훌륭한 이것 식품이죠.
2. 오프라인과 대립되는 말. 공동 전산망.
4. 두 바퀴로 달려가죠. 환경도 살리고, 운동도 하고….
5.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따위의 예술과 관련된 능력을 통틀어 이르는 말.
6.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침. "고장 난 자전거를 OO하다."

〈Weekly 공감〉 61호(5월 19일자) '공감퍼즐' 정답
가로 1 월드컵 2 추신수 4 서민 6 그리스 7 원정대
세로 1 월계수 2 추천서 3 막걸리 5 민원 6 그대

〈Weekly 공감〉 61호 '공감퍼즐' 당첨자
김기철 · 서울 광진구 자양3동
김우승 · 경남 진해시 경화동
민준기 · 대전 서구 정림동
제현진 · 서울 노원구 상계동
최소연 · 전북 군산시 나운동

법질서도 '페어플레이' 합시다

선동열 대구지방경찰청 법질서 홍보대사

2010 프로야구가 지난 3월 27일 개막한 이후 현재 각 구단마다 '가을 잔치'에 초대받기 위해 열전을 펼치고 있다. 내가 감독으로 있는 삼성 라이온즈의 대구야구장에서도 시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관중 수는 1982년 출범 당시 한 해 1백42만여 명이었으나 27년 뒤인 지난해에는 무려 5백92만여 명이 야구장을 찾았다. 올해는 6백만명 이상이 야구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될 만큼 프로야구는 우리 국민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는 대표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일러스트 · 김영민

프로야구가 이토록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뭘까. 그라운드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선수,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는 코칭스태프, 공정한 경기 운영을 위한 심판진 등의 노력이 어우러져 야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짜릿한 감동과 즐거움을 줬기 때문이다.

우리 프로야구가 성숙되기 전 한때는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은 일부 선수들의 욕설과 지나친 항의, 승부에만 집착한 경기 과열이 선수들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져 그라운드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많이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이는 비단 프로야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각종 스포츠경기에는 '페어플레이상'이라는 것이 있다. 이 상은 1964년 유네스코가 창설한 상으로서 우리 프로야구는 2001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경기에 임하는 태도와 관중에 대한 매너, 심판과 기록원의 판정에 승복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상자를 뽑는다.

이제는 이 뜻깊은 상을 우리 시민들에게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대회,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대회 등을 통해 열광적이면서도 질서정연한 응원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바 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경기 그 자체로 만족하는 아름다운 축제의 장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제 관중들은 경기가 끝난 뒤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등 성숙한 질서의식을 보여준다. 휴지나 빈 음료수병, 담배꽁초 등 쓰레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경기규칙을 지키며 화려한 플레이로 최선을 다해 관중들을 위한 최고의 경기와 진정한 스포츠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관중들은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에게 질서정연한 가운데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 진정한 페어플레이가 아닐까 한다.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과 관람객의 질서정연한 응원문화가 올해도 계속 이어져 공명정대하고 신바람 나는 사회를 일구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승화되길 기대한다.

글 · 선동열(삼성라이온즈 감독)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우윤숙 대구 달서구 죽전동

1. '가족 돌봄 서비스로 안심하고 직장 다녀요' 기사가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최근 들어 맞벌이 부부,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이 부쩍 늘어나 자녀 양육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니 반가웠습니다.
2.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라'를 눈여겨 읽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침략과 전쟁 유발행위는 안 되며 이미 그간의 남북회담이나 휴전협정에도 도발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북한이 다시는 오판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처해나갔으면 합니다.
3. 6월 6일 현충일을 앞두고 우리의 불행했던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의 자세와 각오를 다지는 기획기사가 실렸으면 합니다.

배을순 부산 북구 용수로

1. '녹색관광의 미래, 한국에서 길을 찾다'를 읽고 최근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녹색관광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국제 심포지엄까지 개최한 것은 뜻깊은 일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고 관심과 투자도 확대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2. '스모킹 건 확보…민군 합동조사 빛났다'를 읽고 이번 천안함 사태 원인 규명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조사의 성과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제대로 된 조사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의혹과 불신이 쌓이게 마련인데 민과 군이 함께하고, 또한 외국의 조사단까지 합류해 누가 봐도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임을 믿을 수 있게 됐다고 봅니다. 해외에도 홍보를 잘해 북한을 제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3. 요즘 젊은이들이 예의와 버릇이 없어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 안에서 심각하게 훼손돼가고 있는 도덕성을 회복할 방법을 전문가 좌담이나 인터뷰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6월 2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학교·학생·교사의 행복 트라이앵글'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장기요양보험료"를 보호해 주세요!

장기요양보험료가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요?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해 주세요.

신고인
- 내부종사자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기타 직원 등)
  - 복지용구 제조 ·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자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 · 비속
- 기타 일반인

신고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코너 운영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사회복지 부정 · 비리신고센터' 코너 운영

신고 대상
- 속임수나 그 밖의 불법 · 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포상금액
- 내부종사자 신고 : 최고 2,000만 원
-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고 : 최고 500만 원
- 일반인 신고 : 최고 100만 원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5월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 대통령,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군사도발"

온 국민이 생환을 기원했던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태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를 야기한 북한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적극적 억제'로 대북정책을 전환하고, 북한 도발 시 즉각 자위권 발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나흘 뒤인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이렇게 대국민담화를 시작했다. 천안함 46용사의 이름도 얼마 전 이곳 전쟁기념관에 이름을 올렸다.

삼국시대 때부터의 호국 영령 흉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화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로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며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다"고 천안함 사태의 원인과 의미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6·25 남침 이후 북한은 끊임없이 무력도발

을 자행해왔으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과학적, 객관적 조사를 강조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청했다"면서 그간 천안함 사태를 놓고 정부가 취한 객관적 입장에 대해 배경 설명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간절한 염원 때문에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으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나가겠다"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첫째,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될 수 없다.

둘째,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다.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하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고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하겠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눈부신 발전 신화를 성취하며 당당히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북한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대남 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다.

넷째,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 정부는 관련국과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

다섯째,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다"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민족의 공동 번영, 나아가 평화통일"이 목표임을 강조하고 남과 북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눈부신 발전 신화를 성취하며 당당히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북한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대남 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며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국가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역시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다"며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다는 자성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고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며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한층 공고히 할 것도 강조했다.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한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며 "국가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거센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이날 담화를 마무리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이날 대통령의 담화 발표 장소를 전쟁기념관으로 정한 것은 전쟁기념관이 "전쟁과 평화라는 양의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책임 추궁과 응징을 하겠지만 한반도, 남북의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한반도 현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쟁기념관, 특히 호국추모실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G

글 · 박경아 기자

"北에 책임 확실히 묻고 재발 막아야"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를 야기한 북한을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견해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내외에 천명한 직후 통일·국방·외교통상부 장관이 강력한 대북조치를 발표했다. 대통령 담화에 담긴 내용에 대해 관련 부처 장관들이 보다 구체적인 견해와 방안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남북교류 중단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 억제'를 천명함에 따라 통일, 국방, 외교 등 대북 관련 정부 부처 장관들이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월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3개 부처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통일부 | 남북교역 금지·대북지원사업 보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검토하는 것 외에는 모든 남북교역과 교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금지 조치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통일부는 북측에 앞으로 남한 영해의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북한 선박들은 2005년 8월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올해 4월까지 편도 기준으로 모두 2천66회에 걸쳐 남측 항로를 이용했다.

둘째, 남북교역 중단이다. 이번 교역 중단 조치에는 일반 교역(무역)의 반입, 반출은 물론 위탁가공(북한에 원자재를 수출해 가공한 뒤 남한으로 수입하는 방식)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 금지, 북한산 물품 수입을 위한 대북 송금 금지 등이 포함된다.

셋째,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도 제한한다.

넷째,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불허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도 금지한다. 개성공단도 우리 기업의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한다. 다만 생산활동은 지속하되 체류 인원은 축소해 운영하도록 한다.

다섯째, 대북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한다. 여기엔 정부와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지원사업도 포함된다. 그러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한다. 200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북한에 지원된 규모는 쌀, 비료 등을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2조7백59억원, 민간 차원에서 7천6백81억원에 이른다.

현인택 장관은 이러한 금지 내용을 밝히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DB

정부는 북한에 천안함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개성공단(사진)에 대한 신규 투자와 진출을 억제하는 등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선다.

국방부 | 대북심리전 재개·PSI훈련 실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태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란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근절하고 불법 행동에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다음 4가지 조치

현인택(통일) 유명환(외교통상) 김태영(국방 · 사진 왼쪽부터)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이 5월 24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를 발표했다.

첫째, 지난 6년간 중단됐던 대북심리전을 5월 24일 재개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자유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FM라디오 방송을 송출했다. 군사분계선 지역의 확성기 방송도 재개된다.

2004년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인근 94곳의 대형 확성기가 모두 철수돼 재설치와 가동에는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군사분계선 지역 11곳에 설치됐던 대형 전광판도 재설치되며 대북전단(삐라) 살포도 재개된다.

둘째,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5월 24일 이후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날 북한의 남포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들어오려던 북한 국적 '동남 1호'의 출항이 보류됐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해 우리 영해의 해양 정보와 작전환경을 정탐하고 잠수함정의 잠항 침투 등을 획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 가까운 시일 내 서해에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다. 오는 6월 말 또는 7월경 실시할 예정인 이 훈련에는 미국의 7함대를 비롯해 한미 최정예 전력이 참가해 북한의 수중 공격에 대한 방어전술과 해상사격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역내·외 해상차단 훈련에 참여한다.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협력체로서 대량살상무기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한 통신검색, 차단, 승선, 검색 등의 작전을 벌인다.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해 5월 PSI 출범 6년 만에 9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PSI 가입 후 처음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역내 해상차단 훈련은 올 하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며, 우리 군은 오는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 훈련에도 참가하게 된다.

외교통상부 | 안보리 회부·워치콘 상향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한미동맹 차원의 조치

>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남북한의 대결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책임을 기반으로 남북 모두를 위한 평화와 상생의 길로 가자는 것이다.

▲우방·주요국과의 협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 등을 관련국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미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들을 대상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사전 설명하는 등 안보리 회부 절차를 밟아왔다.

유엔 안보리 회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의 카드를 쥐고 있는 미국과 동맹외교를 통해 대북제재를 가할 구상이다.

또 일본, 영국 호주 등 우방국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동참을 설득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 북한의 오랜 동맹국이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설득 외교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고 응징하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동해와 서해지구 군 통신 연락소의 폐쇄와 개성공단 육로통행의 전면 차단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5월 27일 '중대통고문'을 통해 "북남 교류협력과 관련해 우리 군대가 이행하게 돼 있는 모든 군사적 보장조치들을 전면 철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5월 26일 개성공단 내 남북당국 간 경제 분야 대화창구인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강경 태세로 일관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5월 26일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높여 정보수집과 경계활동을 강화했다. 국방부는 5월 28일 그간의 북한 반응을 주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북한의 이러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남북한의 대결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책임을 기반으로 남북 모두를 위한 평화와 상생의 길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대북심리전을 펼치기 위해 군사분계선 인근에 대형 확성기가 재설치되고 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격상 검토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5월 28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의 유가족 중 일부가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들 유가족들은 '연평도 근해에서 전사'로 표시된 국립대전현충원 묘비문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로 바꾸고, 흩어져 있는 전사자 묘를 한곳에 모아 합동묘역을 만들어달라는 등의 건의를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모인 의견들을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의 '서해교전'이란 명칭을 제2연평해전으로 고치고, 2008년 6월 진해 해군사령부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의 흉상을 제막하는 등 당시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 한나라당도 5월 26일 제2연평해전 희생자를 전사자로 예우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특히 보상금을 소급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4일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뒤 제2연평해전 전사자와 관련해 "그분들에 대해서도 (천안함 희생자 수준의) 전사자 예우를 하라"고 말했다.

"대북문제 해결 위해 국론 결집 시급하다"

3차 국민원로회의 개최… "軍, 10년간 안보에 해이" 쓴소리도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민원로회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만큼, 북한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대처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민원로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시급히 국론을 결집해 안보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해이해진 군의 기강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

국민원로회의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철승 전 헌정회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의채 몬시뇰, 현승종 전 총리,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총리,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김수한 전 국회의장.

현승종 국민원로회의 의장(전 총리)은 "군의 기강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는 과거 10년 동안 누적된 문제"라고 말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이번 사태를 우리의 전략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승 전 헌정회장은 "우리는 지금 6·25전쟁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전쟁 이후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전 정부를 거치며 남북협의에 들어간 자금이 핵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줬다"고 비판했다. 남덕우 전 총리는 "주적의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대처에 A학점" 단호한 대처 높이 평가

대북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안보의식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정의채 신부는 "공론이 분열돼 있다"며 "특히 젊은이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국가의 중대사"라고 지적했다.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은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졌으며 합심단결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노신영 전 총리도 "북측에 국민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줘야 하며, 여야 통합이 더욱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은 "여론을 호도하며 그릇된 정보를 확대 생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재정비와 국제 공조를 통해 이번 안보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이만섭 전 의장은 "북한은 어떤 사과도 없이 더욱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 제2, 제3의 천안함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 "최악의 강경책에 대비하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이상훈 재향군인회장은 "강력한 응징과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국민단합을 위해 반국가적, 반안보적 일부 행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동진 전 외무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채택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이홍구 전 총리도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까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원로회의 위원들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대처를 높이 평가했다. "엄청난 사건을 맞아 치밀하게 잘 처리했고 국격(國格) 높은 담화 발표도 국민에게 감동을 줬을 것"(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 "정부가 슬기롭고 당당하게 잘 대처했다"(현승종), "정부 대처에 A학점을 줄 수 있다"(이홍구), "수습과정의 정부 대처는 잘됐고, 고맙다"(송월주),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적절한 대처"(노신영) 등의 칭찬이 나왔다. G

글 · 염영남(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국제사회 '北 고통스러운 돈줄죄기' 공조

안보리, 'BDA식 금융제재' 추진

로이터연합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외교전쟁'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다. 천안함 사태를 유엔헌장 위반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 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정부는 미국과 함께 외교력을 집중해 이르면 6월 초 유엔 안보리 회부를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에 이은 결의안 채택 과정까지 3, 4주 이어질 '외교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1874호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북제재위원회 역시 법률 검토작업과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조치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P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대화와 고립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유엔에서 한국과 미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쉽게 말하면 미국이 북한에 가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를 모든 국가가 북한에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DA 금융제재는 미국이 마카오에 있는 은행인 BDA를 북한의 불법자금 거래 창구로 지목해 북한의 통치자금 2천5백만 달러를 동결한 것. 2005년 9월 제재에 착수해 2년 이상 지속된 이 조치는 북한을 가장 심각한 곤경에 빠뜨린 제재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이라는 '악행'을 저질렀을 때 국제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인 1718호와 1874호를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천안함 사태 계기 '대북제재결의안' 확대·강화

잇단 핵실험 감행으로 지역의 안보질서를 파괴하던 북한이 명백한 전쟁행위로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만큼 각국 정부의 강력한 결의 이행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국제 외교무대에서는 명분도 중요하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도발행위에 따른 제재결의안 채택이라는 상징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해 서방세계 대부분 국가의

우리나라와 미국은 천안함 사태를 일으킨 북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북한의 농축 우라늄 보유 선언에 대해 만장일치로 대북 결의를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찬성을 토대로 내놓은 새로운 제재결의안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할 경우 자칫하면 외교전쟁에서 북한에 패배했다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안보리 대응조치의 수위도 관심거리다. 안보리 결정의 유형은 정치적, 법적 구속력의 강도와 순서에 따라 ▲결의(Resolution)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 ▲언론발표문(Press Statement) 등 세 가지가 있다.

美 상·하원 의원 北 규탄 결의안 채택

이 가운데 정치적, 법적으로 가장 구속력이 강한 것이 안보리 결의다. 이사국 15개국 중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이 모두 찬성해야 하고 비상임 이사국 중 4개국이 동참해야 채택할 수 있다.

의장성명은 안보리 의장이 회의장에서 낭독하고 공식 기록에도 남는다.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안보리 이사국들의 '총의(Consensus)'가 있어야 한다. 언론발표문은 의장성명과는 달리 회의장 낭독 대신 의장이 기자회견장에서만 발표할 수 있으며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미국 하원은 5월 25일(이하 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지지하며 북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4백11표, 반대 3표로 의결했다.

미국 상원도 5월 13일 천안함 사태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표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한미동맹의 중요성 강조 ▲국제사회의 진상조사 전폭적 지원 ▲유엔 안보리 결의 1695, 1718, 1874호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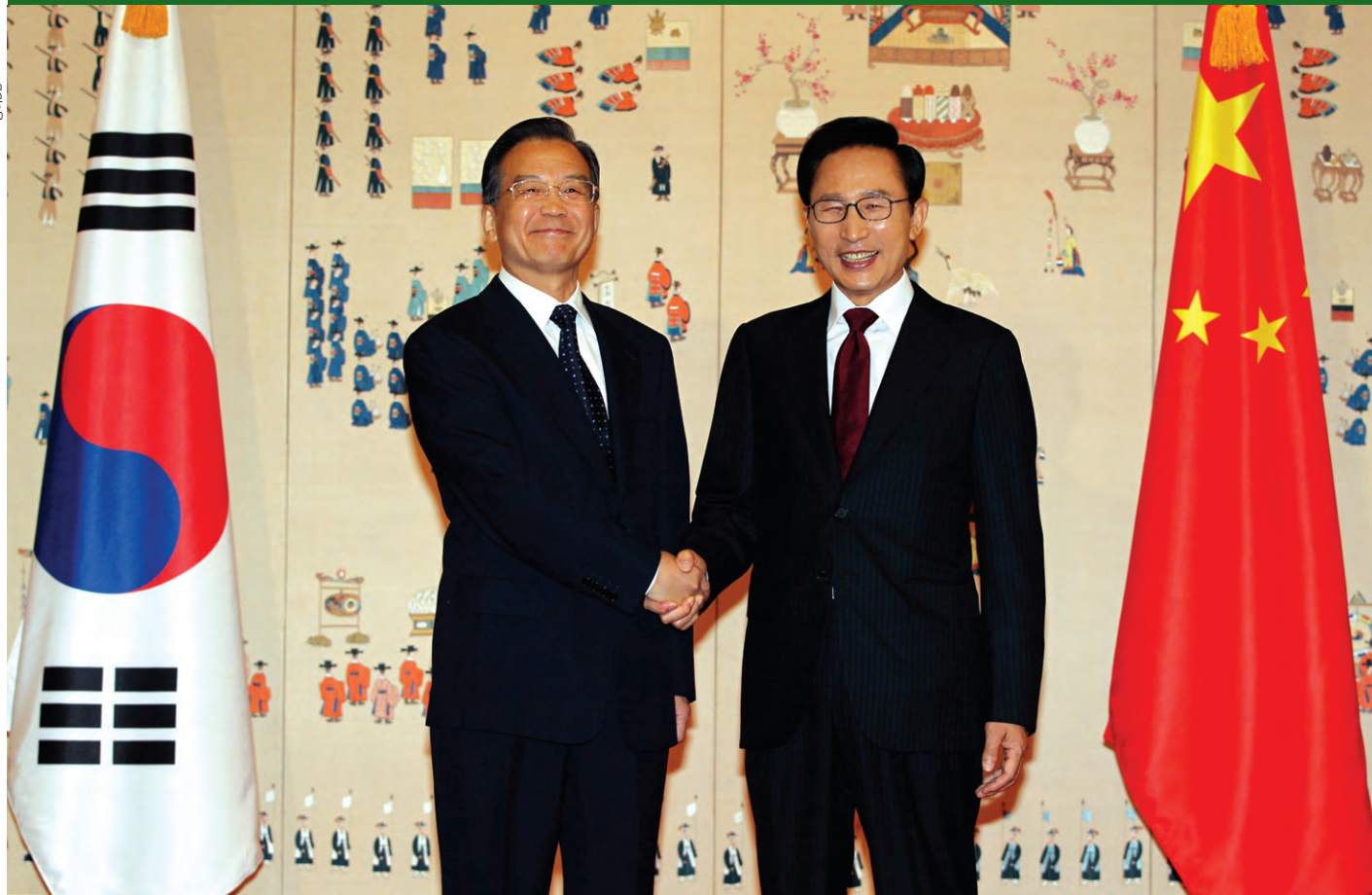
남미, 북미 대륙 32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주기구(OAS)의 호세 미겔 인술사 사무총장도 5월 25일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공격행위를 규탄하는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인술사 사무총장은 이 발표문에서 "국제 전문가들의 조사결과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천안함 침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세계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월 27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을 겨냥해 대화(Engagement) 제의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깊은 고립에 직면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은 52쪽짜리 보고서에서 "미국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핵무기로 대표되는 대량살상무기"라며 "북한과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두 나라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G

글 · 하태원 기자(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이 5월 28일 청와대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中 원자바오 총리 방한… 한중 정상회담

"객관적 판단 후 누구도 비호 않겠다"

정부는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5월 28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이은 한일, 한일중 정상회담,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 등을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적 공조태세가 완비될 때까지 숨 가쁜 외교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5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와 발전 방안, 천안함 사태를 포함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북제재 공조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 총리는 이날 "중국 정부는 국제적 조사와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면서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입장을 결정하겠다"며 "중국은 그 결과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또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도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밝히고 "중국은 한국 국민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고 유가족들에게 재차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北 이끌기 위한 단호한 대응" 요청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북한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원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이 사태를 적정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18년간 양국이 이룬 관계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중 관계가 양호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호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또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협조와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일 협력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 심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원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45분부터 단독회담에 들어가 예정시간(30분)을 훨씬 넘겨 한 시간 가까이 회담을 가졌다. 단독회담에 이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중국 측의 양제츠 외교부장, 천더민 상무부장 등이 참석한 확대정상회담을 가졌다.

한편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양국 정상회담이 끝난 뒤 "중국 측이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매우 절제되고, 균형이 잡혔으며,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클린턴 美 국무장관 방한 "한국 정부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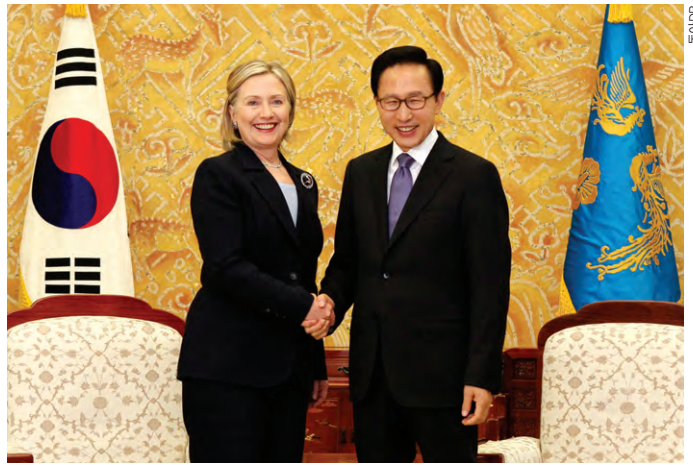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5월 26일 중국과 일본을 순방하고 한국을 찾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접견, 순방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클린턴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대해 명확한(clear and unmistakable)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왔다"며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지역 문제는 물론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등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데 대해 개인적으로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천안함 관련 담화를 통해 이 대통령이 신중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계속 완벽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가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한 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검

동아DB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5월 26일 한국을 방문, 이명박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도 반대하고 규탄한다. 한국 국민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고 유가족들에게 재차 애도의 뜻을 표한다.

– 원자바오 중국 총리

증하기 위해 전문가팀을 한국에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대통령궁인 크렘린은 5월 26일 성명을 통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 천안함 조사결과와 수집된 증거를 상세하게 살피기 위해 러시아 전문가팀을 한국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크렘린은 이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책임이 밝혀지면 국제사회가 판단하기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에서 열린 제3차 한일중 정상회담(5월 29, 30일)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다음 날인 5월 29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하토야마 총리와 가진 세 번째 회담에서 천안함 사태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틀간 열린 제3차 한일중 정상회담에서는 3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발전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또한 2009년 이 대통령이 제안한 '3국 협력사무국' 설치가 본격화됐으며 '3국 협력 Vision 2020'을 채택해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제도화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토론회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의 기본가치"

평행선을 달려온 보수와 진보 진영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회통합위원회가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 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기 위해 연중 토론회를 마련한 것. 보수와 진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모색함으로써 갈등 치유를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5월 25일 열린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제3차 토론회'. 사진 왼쪽부터 홍성민(동아대), 임혁백(고려대), 이정복(서울대) 교수와 사회평론가 복거일 씨, 전삼현(숭실대) 교수.

보수와 진보가 한자리에 앉아 '맞짱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이는 소모적 갈등과 대립의 자리가 아니라 상생 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같은 취지로 사회통합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제3차 토론회'가 5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지난 1월 출범한 사회통합위원회가 주도해 보수와 진보 간 '소통의 마당'으로 마련한 10차례의 연중 토론회 중 3번째다.

고건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과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장은 공동 명의의 초청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그동안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간의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생산적인 이념과 정책 경쟁을 통해 21세기 국가 발전의 한국형 모델을 모색해 제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 :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이정복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보수 진영의 복거일 사회평론가와 진보 진영의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가했다.

헌법의 가치·정권에 대한 시각 등 의견 차 보여

이날 토론회에서 보수 측 시각을 대변한 복거일 씨는 "대한민국에서 정통성을 가진 이념은 자유주의이며, 자유주의는 '사회적 강제'의 최소화"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진보 측의 임혁백 교수는 "자유주의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이념"

"대한민국에서 정통성을 가진 이념은 자유주의이며 자유주의는 '사회적 강제'의 최소화다."

복거일 씨.

"'자유주의'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이념으로 국가권력의 제한을 말하는 것이다."

임혁백 교수.

이라며 "자유주의란 국가권력의 제한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거일 씨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민족사회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반면, 임혁백 교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시장적 자유주의를 동시에 추구했다고 파악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정설·이설, 그리고 정권과 코포러티즘(Corporatism·자본과 노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 대한 판단 등에서 다른 견해를 보였다.

구동존이(求同存異) 방식 5가지 합의 사항 발표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의 주장에선 동질성도 발견됐다. 두 사람은 먼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현대 민주주의의 작동원리 안에는 이미 자유주의 가치가 내재돼 있어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틈새를 메워준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그리고 '자유주의와 코포러티즘은 분명 다르고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 등 2백여 명의 청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보수와 진보가 '구동존이(求同存異)' 방식으로 5가지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구동존이란 서로 의견을 조화시키되 합치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뒷날을 기약하는 방식이다. 이날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헌법의 기본가치,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공화국 등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우리 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는 각각의 성과를 갖고 있다. 셋째, 21세기에도 대의민주주의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중심원리를 이루고 있고, 가장 중요한 정치원리이다. 다만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의 하나로 거버넌스(국정관리)에 대해 앞으로 주목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갈등조정자로서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다섯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조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홍성민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87년 이전까지는 민주냐 독재냐가 정치의 핵심이었으나 2008년 쇠고기 파동 이후 '광장정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광장의 소통정치를 과신했고 이명박 정부는 무시했다.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끌어안지 않으면 진보든 보수든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치는 이분법적 논리에 매몰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질(質)에 관한 토론"이었다고 이날 토론을 평가했다. "오늘 지적된 절차상 민주주의의 문제도 문민정부 이후 크게 발전해 왔으며 시장의 자유, 복지 역시 후퇴하지 않았다"고 분석한 전 교수는 "6세계적 평가기관의 평가에서도 가장 낮은 부분이 법치주의다. 선진화를 위해 법에 의한 지배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G

글·박경아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토론회 일정

일시	주제
3월 31일	한국사회 이념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4월 26일	경제, 자유시장경제인가 제3의 길인가
5월 25일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 : 문제와 대안
6월 29일	남북·한미관계, 상호주의인가 포용정책인가
7월 27일	균형발전, 분권으로 가는 두 가지 전략
8월 31일	교육, 경쟁력인가 형평성인가
9월 28일	사회복지, 미국 모델인가 유럽 모델인가
10월 26일	세계화, 어떤 개방을 이룰 것인가
11월 30일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의 이중 과제
12월 14일	종합토론 '하모니 코리아' '리모델 대한민국'을 위한 전략과 과제

문의·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팀 Tel 02-2180-2732

날아라, 나로호!

6월 9일 2차 발사 카운트다운

6월 9일 오후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2차로 발사된다. 나로호는 지난해 1차 발사 당시 위성궤도 진입 실패의 원인이 된 페어링(위성 보호덮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최종 성능 점검을 마치고 발사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5월 14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나로호(KSLV-Ⅰ)의 실험용 모형(엔진과 상단부는 없지만, 실제와 똑같은 모양의 모델)이 발사 준비 연습을 하고 있다.

“비록 1백 퍼센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나로호 1차 발사에 큰 의미가 있다. 위성을 우주에 띄우는 발사대, 발사체의 설계부터 발사까지 모든 과정을 밟으면서 큰 소득을 얻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25일 온 국민의 염원을 담고 발사된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KSLV-Ⅰ: Korea Space Launch Vehicle-Ⅰ)는 우주궤도 진입에 실패하고 말았지만,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권세진 교수는 이를 ‘상당한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나로호는 5월 말 현재 ‘완전한 성공’을 향해 마지막 성능 점검에 들어갔다. 바야흐로 오는 6월 9일 오후에 2차 발사를 앞두고 있다.

나로호는 앞서 5월 17일에는 발사 준비 전 최종 조립 단계를 마쳤다. 과학기술위성 2호와 나로호 상단의 주요 부품들이 조립된 후 최종으로 러시아산 1단 엔진과 최종 조립하는 이른바 ‘총조립’ 단계를 마친 것이다. 이어 5월 19일에는 이들 부품의 전기적, 기계적 체결까지 마쳤다.

작년 1차 발사 실패 원인 검증·보완

이를 위해 지난 3, 4월 인공위성과 우주 발사체의 주요 부품들이 국내외 제작 장소를 떠나 나로우주센터에 잇따라 도착했다. 3월 23일에는 나로호 페어링을 포함한 상단이 들어왔으며, 4월 5일에는 러시아에서 완제품 형태로 나로호 1단이 들어왔다. 우주 발사체에 장착될 과학기술위성 2호(STSAT-2)는 4월 8일에 합류했다. 그 후 약 한 달 동안 발사체와 발사대의 성능시험을 마친 상태다.

나로호는 최종 점검을 마친 뒤 발사 이틀 전 발사 패드까지 이송돼 기립장치(이렉터)를 이용해 발사대에 거치된다. 발

사 하루 전에는 발사 당일과 같은 절차를 모의 시험하는 리허설을 하게 된다.

발사 당일에는 발사체에 연료 공급장비를 연결하고 연료를 충전한다. 발사 50분 전에는 기립장치를 철수한다. 초 단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은 발사 15분 전. 이때부터 자동발사 기능이 작동된다.

나로호는 1백 킬로그램급의 과학기술위성 2호를 실어 지구 저궤도(근지점 고도 3백 킬로미터, 원지점 고도 1천5백 킬로미터)에 쏘아올리는 임무를 띠고 있다.

성공할 경우 위성을 감싸고 있는 페어링이 발사 2백15초 만에 고도 1백77킬로미터 근방에서 분리되고, 2백32초 만에 발사체 1단과 2단이 분리된다. 이어 4백53초쯤이면 고도 3백 킬로미터 근방에서 2단 킥모터(고체연료 엔진)가 연료를 다 태우고 목표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그로부터 약 1분30초가 지나면 드디어 과학기술위성 2호가 분리될 예정이다. 발사부터 약 5백40초(9분) 만이다. 그러고 나서 약 13시간 뒤에는 위성이 지상국과 정상 교신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성공하면 세계 10대 우주 강국 진입

한국 우주 개발의 역사는 1992년부터 시작한다. 1992년 한국 최초의 위성인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래 같은 해 우리별 2호와 1995년 3호를 발사했다.

통신위성과 다목적실용위성의 개발도 잇따랐다. 1995년에는 한국 최초의 통신위성인 무궁화 1호를 발사하고 이듬해 무궁화 2호, 1999년 9월에는 무궁화 3호, 2006년에는 무궁화 5호를 쏘아올렸다.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발사된 아리랑 1호, 아리랑 2호는 다목적실용위성으로, 자연재해 감시, 자원 이용 실태 조사, 지도 제작, 군사 정찰 등에 다목적으로 쓰인다.

또 6월 말에는 한국 최초의 다목적 정지궤도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 '천리안'이 발사될 예정이다.

이처럼 20년에 가까운 한국 우주 개발의 역사는 나로호가 발사될 경우 새로운 장이 열린다. 나로호는 위성을 우주로 실어나르는 데 필요한 로켓, 즉 우주 발사체이다.

1단 액체엔진과 2단 킥모터로 구성된 2단형 발사체로, 1단은 러시아에서 완제품을 도입하고, 2단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것이다. 액체엔진은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대형 발사체의 주엔진이 되는 우주 발사체의 핵심 부품이다.

이번 발사를 통해 2018년쯤 한국이 1백 퍼센트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주춧돌을 놓겠다는 게 나로호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포부다.

이번 2차 발사는 지난해 나로호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을 철저히 검증하고 보완한 결과다. 지난 2월 나로호 발사 조사위원회는 한국과 러시아 양측의 조사를 종합해 '발사 당시 상단부 페어링 한쪽이 분리되지 않아 위성의 자세 제어가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위성 2호가 궤도 진입에 필요한 속도(초속 8킬로미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실패 원인을 발표했다.

당시 2단과 위성 모두 목표궤도에 진입하지 못해 대기권으로 떨어져 소멸됐을 것이라고 위원회는 추정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페어링 분리시험 7회, 각종 시스템 시험 4백여 회를 수행했다. 이 밖에도 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분리장치 강성 보강, 케이블 연결기 보완 등 개선 방안을 반영해 충분한 시험을 거쳤다.

나로호 2차 발사가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 10대 우주 강국에 진입한다. 자국 영토에서 발사한 인공위성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국가를 뜻하는 '스페이스 클럽'에 열 번째 국가로 올라서는 것이다. G

글 · 최은숙 기자

나로호 2차 발사 준비 과정

시기	내용
2009년 8월	나로호 1차 발사(8.25 결과 : 위성 궤도 미진입) 나로호 발사 조사위원회 구성해 원인 규명 착수(8.28)
2009년 9월~ 2010년 1월	페어링 전문 조사 TF팀 회의(25회), 페어링 분리시험(7회), 단위부품 및 시스템 시험(약 4백 회) 나로호 발사 조사위원회 중간결과 발표(11.5) – 페어링 비정상 분리의 가능한 원인으로 페어링의 구조적 문제점 발생 가능성과 전기회로 문제점 발생 가능성 제시
2010년 2월	나로호 발사 조사위원회 최종 조사결과 발표(2.8) – 페어링 비정상 분리 추정 원인 및 개선 방안 발표 비행용 페어링 지상분리시험 성공(2.25)
2010년 3월	과학기술위성 2호 정기 점검 상단 및 페어링 나로우주센터 이송(3.23) 나로우주센터 발사체 조립동 자체 점검 완료(3.26)
2010년 4월	1단 인수 및 상단부 조립 착수(4.5~6) 과학기술위성 2호 나로우주센터 이송(4.8) 발사대 성능 점검시험 완료(4.16)
2010년 5월	나로호 발사대 성능 검증(5.14) 나로호 상단과 1단 총조립(5.17) 상단과 1단의 전기적, 기계적 체결 완료(5.19)
2010년 6월	한러 비행시험위원회, 발사 준비상태 최종 확인(6월 초) 발사(6.9 예정)

자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글로벌 녹색성장 이끄는 주축 되자"

세계사이언스파크 총회 대전서 열려… '대덕선언' 채택

전 세계 사이언스파크의 올림픽이자 세계 과학기술 교류의 장(場)인 세계사이언스파크 총회가 5월 24일부터 사흘간 대전에서 열렸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총회는 글로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덕선언'을 채택, 사이언스파크 간 그린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위한 긴밀한 공조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올해 세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식경제부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5월 24일부터 사흘간 대전에서 글로벌 녹색성장과 첨단기술단지를 뜻하는 사이언스파크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제27회 세계사이언스파크(IASP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ce Park) 총회를 개최했다.

IASP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1984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법인. 72개국의 3백73개 사이언스파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덕특구본부와 경기, 충북, 충남, 대전, 경남 등 5개 테크노파크도 IASP의 회원이다.

이번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대덕특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롤리에서 열린 IASP 총회에는 7백70여 명이 참가했으나, 이번 총회에는 회원기관이 많은 유럽 지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은 참가자가 몰려 57개국에서 1천2백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전시 관람객까지 포함하면 2천명이 넘는다.

57개국 1200여 명 참가 '역대 최대' 규모

5월 2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회식에도 정운찬 국무총리와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 안현호 지식경제부 차관 등 국내 주요 인사는 물론 세계 각국의 사이언스파크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개회식에서 정운찬 총리는 "기술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전 세계 주요 사이언스파크 관계자가 녹색성장의 가치에 대해 토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는 2005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그럽스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교수와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각각 '환경친화적 청정화학 활성화 방법'과 '녹색기술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남표 총장은 "한국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미래 국가 비전으로 삼았으며 한국의 녹색기술은 이산화탄소 저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 총장은 또 "카이스트는 과학기술대학으로서 21세기 인류에 닥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첨단 녹색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움직이는 부두인 모바일 하버(Mobile Harbor)나 올리브 전기차 같은 혁신적 제품을 발명해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할 것"이

> **IASP 대덕 총회에서 공표한 '대덕선언'의 골자는 지식자본과 기술의 집적 및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사이언스파크가 지역과 국가, 나아가 세계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루이스 산츠 세계사이언스파크(IASP) 사무총장이 5월 24일 IASP 총회 개회식을 진행하고 있다.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두 발로 걷는 인간형 로봇 '휴보(HUBO)'가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꽃다발을 주고 있다.

라고 밝혔다.

이후 사흘간 열린 학술행사에는 덴마크 코펜하겐 경영대의 비외른 롬보르 교수, 일본 이바라키현 과학기술진흥재단의 에자키 레오나 이사장(1975년 노벨물리학상 수상), 일본산업기술연구소의 노마구치 다모쓰 이사장, 미국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TP)의 릭 웨들 대표 등 8개국의 석학 27명이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녹색성장과 사이언스파크의 발전에 대한 55개의 논문을 발표해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국 녹색성장 의지 담은 '대덕선언' 채택 성과

이와 더불어 열린 국제녹색첨단기술전시회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주제관, Biz관, STP(Science & Technology Parks)관, R&D관 등 4개관에 1백 개의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 이 전시회는 기존의 학술 컨퍼런스 위주에서 탈피해 글로벌 비즈니스의 연계로 차별화를 꾀한 이번 총회의 특징을 살려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해외 사이언스파크 관계자들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비행기'라 일컫는 위그선,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전자종이 등 대덕특구의 첨단 녹색기술이 빚어낸 성과물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이번 총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강한 의지를 천명한 '대덕선언'을 IASP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전 세계 사이언스파크 전체의 뜻으로 공표한 데 큰 의의가 있다.

대덕선언의 골자는 지식자본과 기술의 집적 및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사이언스파크가 앞으로 지역과 국가, 나아가 세계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IASP 회원기관들 간에 그린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 ISAP는 앞으로 사이언스파크 간 그린네트워크 구축과 긴밀한 공조협력을 위해 녹색성장에 관한 우수 사례와 정보를 수집해 회원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IASP 후안 벨라비스타 회장은 5월 26일 총회 폐막연설에서 "녹색첨단기술 전시, 대덕선언 등 대덕특구의 많은 준비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번 총회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이번에 논의되고 모아진 의견들을 바탕으로 IASP와 사이언스파크가 글로벌 녹색성장과 경제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주축이 되자"고 이정표를 제시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월드컵, 이 경기만은 놓치지 말자

6월 12일 그리스와 첫 경기… 명승부 관전법

4년마다 한 번씩 축구팬들은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것을 느낀다. 도화선은 바로 월드컵. 2010 남아공월드컵이 6월 11일(이하 한국 시간) 개최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멕시코의 A조 개막전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결승전까지 이어질 64경기 모두 제대로 즐기고 싶지만 문제는 새벽까지 버틸 체력. 일단 한국대표팀 경기에 열정을 쏟자. 그 다음엔 축구 강국들의 라이벌 대결에 집중력을 안배하자. 미리 보는 남아공월드컵 '빅 매치' 향연!

'사상 최강' 23명의 태극전사가 포진된 우리 대표팀의 경기가 국내 팬들에겐 역시 최고의 빅 매치다. 6월 12일 그리스, 6월 17일 아르헨티나, 6월 23일 나이지리아전이 열리는 새벽은 '잠 못 드는 밤'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첫 경기인 그리스전은 한국축구의 운명이 걸린 한판 승부다.

3월부터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 일본을 차례로 2대 0으로 완파했지만 아직 희망과 우려가 함께한다. 일단 공격진은 만족스럽다. 리그 종료 후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한 뒤 일본전에서 완숙한 기량을 선보인 박지성과 이청용의 페이스는 다시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리그 장기 결장, 부상 등으로 감각이 무뎌졌던 기성용과 염기훈도 벨라루스 및 우승후보인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스페인과의 평가전을 통해 첫 경기 전까지 컨디션을 끌어올릴 전망. 허벅지 부상에서 회복된 박주영도 일본전에서 '만점 활약'으로 걱정을 씻어냈다.

당돌해 보일 만큼 자신감에 넘치는 막내 이승렬도 언제든지 출격 가능하다. 이렇듯 공격의 창날이 날이 갈수록 예리하게 벼려지는 마당에 그리스 수비가 5월 26일 북한과의 평가전(2대 2 무승부)에서 여러 차례 약점을 노출해 우리로선 한결 시름을 덜었다.

발 느린 그리스, 수비 배후공간이 '구멍'

그리스 수비진은 경기 내내 북한의 정대세, 홍영조 등 공격수들의 빠른 순간 돌파에 당황했다. 북한의 두 번째 골도 그리스 수비가 정대세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해 완벽한 슈팅 찬스를 허용한 결과였다. 장신의 중앙 수비수 키르키아코스 등의 제공권 장악력은 수준급이지만, 수비 배후로 침투하는 빠른 공격수들을 종종 놓치곤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박주영 등 최전방 공격수가 상대 마크맨을 끌고 나오면서 후방의 볼을 받아 다시 동료에게 짧게 내준 뒤 좌우 측면, 그리고 중앙으로 쇄도하는 박지성과 이청용의 가동력을 활용하는 옵션이 그리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일본전 선제골처럼 박지성이 이청용과 위치를 순간적으로 바꿔 수비 배후공간으로 침투하는 전략도 민첩성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그리스 수비를 공략하는 데 효과적이다.

브라질 vs 포르투갈, 프랑스 vs 멕시코 경기도 관심

반면 장신을 이용한 그리스의 위력적인 세트플레이는 큰 부담이다. 북한전에서 얻어낸 두 골 모두 세트플레이에서 나왔다. 전담 키커 카라구니스의 정확하고 날카로운 킥과 1백 90센티미터가 넘는 장신 수비수들의 쇄도가 자못 위협적이다. 일단 볼이 이마에 닿으면 대부분 골문으로 향할 만큼 정확도가 높다. 헤딩 경합에서 리바운드된 볼을 연결하는 움직임도 위력적이다. 따라서 우선은 위험지역에서 불필요한 반칙을 하지 않는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

한국이 그리스전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그 상승세를 업고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전에서 선전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다른 빅 매치들을 관전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네덜란드-덴마크(E조, 6월 14일), 코트디부아르-포르투갈(G조, 6월 15일), 프랑스-멕시코(A조, 6월 18일), 가나-독일(D조 6월 24일), 포르투갈-브라질(G조, 6월 25일) 경기가 눈길을 끈다.

특히 '죽음의 조'로 불리는 G조의 코트디부아르-포르투갈, 포르투갈-브라질전은 그야말로 '스타워즈'다. 잉글랜드와 스페인 리그에서 활약하는 최고의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첼시의 드로그바(코트디부아르)와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포르투갈)가 구사할 화려한 개인기에 넋이 나갈 각오를 해야 한다.

'개인기' 하면 빠질 수 없는 삼바 군단 브라질이 이 대결에 불을 붙인다. 레알 마드리드 동료이기도 한 카카(브라질)와 호날두의 자존심 대결도 '핫'한 볼거리. 브라질과 포르투갈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포르투갈 3대 1 승)에서 맞붙은 뒤 44년 만에 월드컵에서 재대결한다. G

글 · 유재영 기자

동아DB

6월 25일 벌어지는 브라질과 포르투갈의 G조 경기는 이번 남아공 월드컵 조별 예선 최고의 빅 카드. 브라질의 카카와 포르투갈의 호날두(사진 왼쪽)가 펼칠 자존심 대결이 불꽃을 뿜을 전망이다.

2010 남아공월드컵 일정표

조별 예선

조	참가국	6월 11일 (금요일)	6월 12일 (토요일)	6월 13일 (일요일)	6월 14일 (월요일)	6월 15일 (화요일)	6월 16일 (수요일)	6월 17일 (목요일)
A	남아프리카공화국(90위) 멕시코(17위) 우루과이(18위) 프랑스(10위)	남아공 : 멕시코 23:00	우루과이 : 프랑스 03:30					남아공 : 우루과이 03:30
B	아르헨티나(7위) 나이지리아(20위) 대한민국(47위) 그리스(12위)		대한민국 : 그리스 20:30 아르헨티나 : 나이지리아 23:00					아르헨티나 : 대한민국 20:30 그리스 : 나이지리아 23:00
C	잉글랜드(8위) 미국(14위) 알제리(31위) 슬로베니아(23위)			잉글랜드 : 미국 03:30 알제리 : 슬로베니아 20:30				
D	독일(6위) 호주(20위) 세르비아(16위) 가나(32위)			세르비아 : 가나 23:00	독일 : 호주 03:30			
E	네덜란드(4위) 덴마크(35위) 일본(45위) 카메룬(19위)				네덜란드 : 덴마크 20:30 일본 : 카메룬 23:00			
F	이탈리아(5위) 파라과이(30위) 뉴질랜드(78위) 슬로바키아(38위)					이탈리아 : 파라과이 03:30 뉴질랜드 : 슬로바키아 20:30		
G	브라질(1위) 북한(106위) 코트디부아르(27위) 포르투갈(3위)					코트디부아르 : 포르투갈 23:00	브라질 : 북한 03:30	
H	스페인(2위) 스위스(26위) 온두라스(40위) 칠레(15위)						온두라스 : 칠레 20:30 스페인 : 스위스 23:00	

16강

6월 26일 (토요일)	6월 27일 (일요일)	6월 28일 (월요일)	6월 29일 (화요일)	6월 30일 (수요일)
❶ A조 1위 : B조 2위 23:00	❷ C조 1위 : D조 2위 03:30 ❸ D조 1위 : C조 2위 23:00	❹ B조 1위 : A조 2위 03:30 ❺ E조 1위 : F조 2위 23:00	❻ G조 1위 : H조 2위 03:30 ❼ F조 1위 : E조 2위 23:00	❽ H조 1위 : G조 2위 03:30

8강

7월 2일 (금요일)	7월 3일 (토요일)	7월 4일 (일요일)
❶ ❺승리팀 : ❻승리팀 23:00	❷ ❶승리팀 : ❷승리팀 03:30 ❸ ❸승리팀 : ❹승리팀 23:00	❹ ❼승리팀 : ❽승리팀 03:30

굵은 표시는 한국전(빨간색) 및 주목해야 할 경기(녹색).

6월 18일 (금요일)	6월 19일 (토요일)	6월 20일 (일요일)	6월 21일 (월요일)	6월 22일 (화요일)	6월 23일 (수요일)	6월 24일 (목요일)	6월 25일 (금요일)	6월 26일 (토요일)
프랑스 : 멕시코 03:30				**프랑스 : 남아공 23:00** 멕시코 : 우루과이 23:00				
					그리스 : 아르헨티나 03:30 **나이지리아 : 대한민국 03:30**			
슬로베니아 : 미국 23:00	잉글랜드 : 알제리 03:30				슬로베니아 : 잉글랜드 23:00 미국 : 알제리 23:00			
독일 : 세르비아 20:30	가나 : 호주 23:00					**가나 : 독일 03:30** 호주 : 세르비아 03:30		
	네덜란드 : 일본 20:30	카메룬 : 덴마크 03:30					덴마크 : 일본 03:30 **카메룬 : 네덜란드 03:30**	
		슬로바키아 : 파라과이 20:30 이탈리아 : 뉴질랜드 23:00				슬로바키아 : 이탈리아 23:00 파라과이 : 뉴질랜드 23:00		
			브라질 : 코트디부아르 03:30 포르투갈 : 북한 20:30				포르투갈 : 브라질 23:00 **북한 : 코트디부아르 23:00**	
			칠레 : 스위스 23:00	스페인 : 온두라스 03:30				칠레 : 스페인 03:30 스위스 : 온두라스 03:30

4강		3·4위전	결승전
7월 7일 (수요일)	7월 8일 (목요일)	7월 11일 (일요일)	7월 12일 (월요일)
❶ ❶승리팀 : ❷승리팀 03:30	❷ ❸승리팀 : ❹승리팀 03:30	❶패전팀 : ❷패전팀 03:30	❶승리팀 : ❷승리팀 03:30

그래픽 · 주간동아 최정미

그들이 지킨 것은 歷史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독도사랑' 사진전

조영철 기자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1 서울 메트로미술관 제1관에서 열린 '독도사랑' 사진전.

2 일렁이는 파도 사이로 동도와 서도로 나뉜 독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3 독도의용수비대는 1953년 울릉도 거주 청년들을 중심으로 창설된 민간조직이다. 한 청년이 포대경으로 독도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

4 사진전에는 독도 모형이 마련돼 독도 주변을 한눈에 훑어볼 수 있다.

조영철 기자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짙푸른 동해, 물새들을 벗 삼아 수심 2천 미터 바다에 우뚝 솟아 제자리를 지키고 선 독도. 수천 년 풍상을 견뎌 내온 독도는 우리에게 그저 섬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키는 상징적 의미를 오롯이 품고 있다.

독도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이 섬과 운명을 함께했다. 조선 숙종 대에 두 차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것이라는 외교문서를 받아낸 안용복, 6·25전쟁 직후 독도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일본을 쫓아내고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가 그들이다.

1953년 결성된 독도의용수비대는 홍순칠 대장 등 6·25 참전 경험이 있는 울릉도 거주 청년들이 중심이 돼 만들어진 순수 민간조직이었다.

이들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조업 중인 울릉도 주민을 보호하고, 독도에 무단 상륙한 일본인과 일본 순시선을 내쫓았다. 3년 8개월간 독도를 지킨 이들은 1956년 경찰에 임무를 인계했지만 이들의 활동은 독도 지키기와 독도 가꾸기 운동의 시발점이 돼 오늘도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는 5월 26~31일 서울 메트로미술관 제1관(3호선 경복궁역 지하1층)에서 '독도사랑' 사진전을 열었다. '독도의용수비대! 그들이 지킨 것은 독도가 아니라 역사다' 란 주제로 독도 모형과 독도의용수비대 활동 관련 영상물, 고지도와 고문서, 독도의용수비대 자료, 독도의 일반 경관, 독도의 해양생물 등 1백 여 점의 자료를 전시했다.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선해국 사무처장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독도의용수비대의 호국정신을 되새기고,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역 미술관에 독도 사진전을 마련했다" 고 전시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www.newplus.go.kr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두부 한모, 고등어 한 마리, 파 한단을 사더라도
깎고 또 깎으며 알뜰하게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만기가 되어가는 전셋집 걱정에 한숨 쉬곤 하셨는데
이제 '보금자리주택' 덕분에 한시름 놓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를 보니 마음이 한결 행복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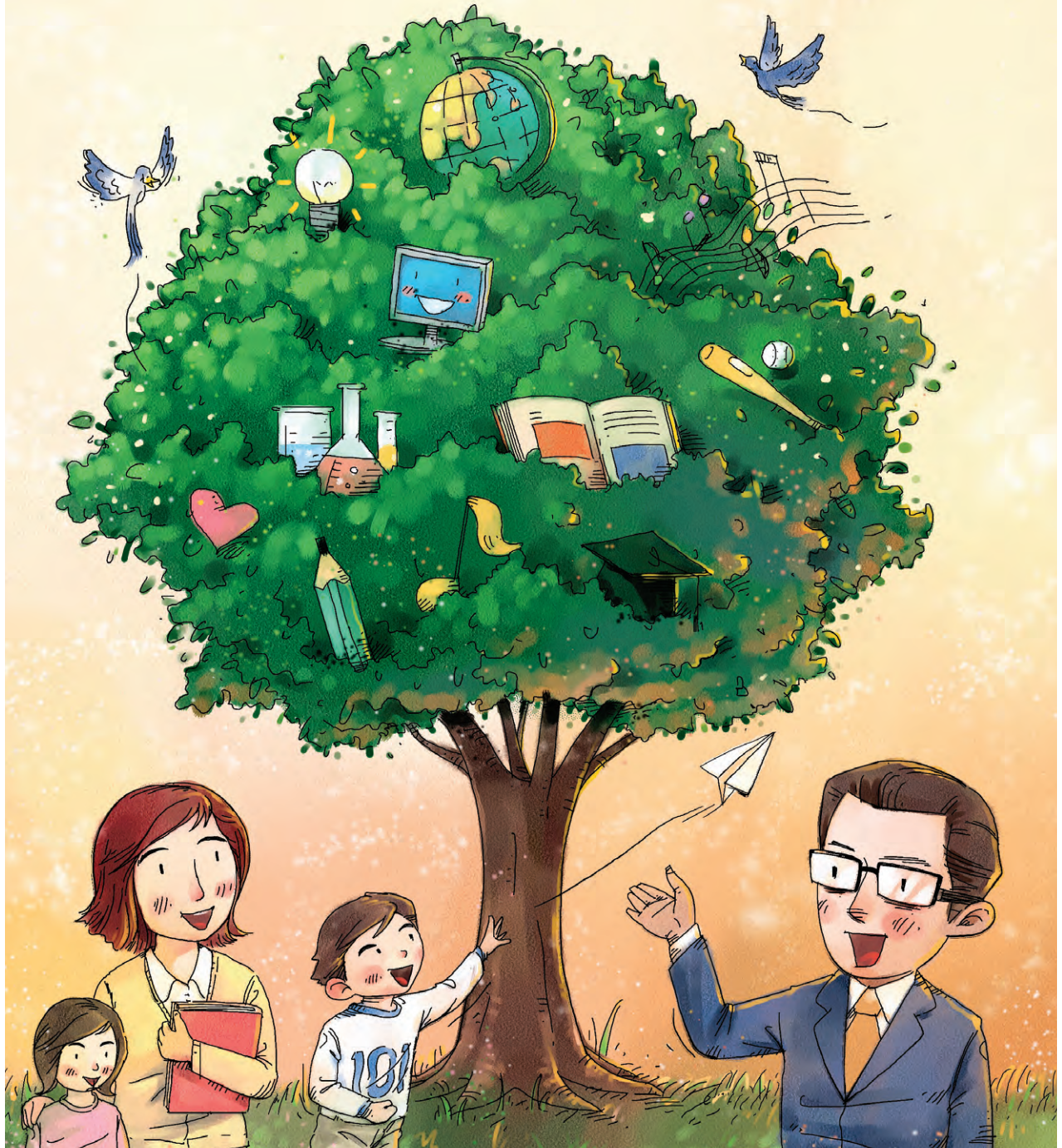
보금자리주택 투기는 사회의 공적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 국민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다양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보금자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자연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단지를 건설하고 삶의 여유를 지원하는 복합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기 획 특 집

학교·학생·교사 ‘행복 트라이앵글’

아인슈타인은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인류 최고의 천재’입니다.
그는 “틀에 얽매인 교육은 유익하지 못하다. 창조성을 깨우치는 게 교육자의 최고 기술”이라고 강조했지요.
지금 우리 교육계에선 틀을 깨는 실험이 한창인데요. 새로운 학교 모델이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쯤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창조적 괴짜들’이 필요합니다.
미래 세상의 틀까지 바꿀 ‘무한상상’ 인재들을 더 많이 길러내야 합니다.

일러스트 · 김영민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산다

교육개혁에 매진하는 정부의 '초심'은 흔들림이 없다. 교육개혁을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는 올봄부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매달 1회 개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개혁의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 경쟁력은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달렸다. 입시에만 집중하는 획일화된 교육으로는 그런 인재를 결코 길러낼 수 없다. 적극적으로 시대변화에 맞춰 과감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5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개혁의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교육개혁의 의지를 다시 역설한 것.

올 들어 교육개혁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이 대통령은 제35차 라디오연설에서 "교육개혁은 올해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면서 "매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어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3월부터는 매달 한 차례씩 대통령 주재로 교육개혁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3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교육개혁대책회의는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참석 인사들은 교육계 인사청탁 등 교육 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교육 현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열린 교육개혁대책회의

회차	일시	주요 논의
1차	3월 17일	**교육비리 근절대책** 교원·교육전문직 인사제도 선진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비리 취약 분야 제도 개선 부패방지 체제 및 평가기능 강화
2차	4월 26일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교직문화 확산** 교원 업무 경감방안(수업 자격 및 행정관리 자격 분리)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수석교사제, 학습연구년제 등) 시군구교육청 기능 활성화
3차	5월 18일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육내용·방법·평가체제 혁신** 학교 안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개선 학교 밖 체험활동 활성화 학생·교원·학부모 역량 강화 창의·인성교육 평가시스템 강화

정부 부처 관계자 외에도 각 시도 교육감, 교육연구기관,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입학사정관제, 마이스터고, 교원평가제 등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별 학습내용 20% 이상 줄여

2차 교육개혁대책회의는 4월 26일 서울 당산동 서울시남부교육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교직문화 확산'을 주제로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 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는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현재 일원화된 교원 자격체제를 '수업 자격체제'와 '행정관리' 자격체제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공문 감축, 순회교사 활성화, 인턴교사 증원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석교사제 제도화, 학습연구원제 도입, 무급 연수휴직 활성화 등도 논의했다.

지난 5월 18일에 열린 제3차 교육개혁대책회의는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평가체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안병만 장관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별 학습내용을 20퍼센트 이상 감축하고, 교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수업방법을 도입하며 2, 3시간을 묶어서 수업하는 '블록 타임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학교 안팎의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체, 대학, 정부 부처 등의 교육기부 운동과 교육협력 협약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 취약계층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 ▲서술형 평가 확대 ▲예체능 교과 내신평가 체제 개선 ▲입학사정관제에서 창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이 5월 14일 경기 수원시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일일교사를 맡아 특강을 하고 있다.

의·인성 평가 비중 강화 ▲과원(過員) 교사의 진학·진로 상담교사 전환 등 세부 정책안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 현장을 방문해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올 3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마이스터고인 수도전기공고 개교식에 참석해 같은 날 개교한 전국 21개 마이스터고 학생 대표들을 격려하며 "마이스터고는 우리 교육을 바꾸기 위한 신선한 도전이자 미래를 개척할 학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수원 삼일공고 방문… 일일교사로 특강

또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5월 14일에는 경기 수원시 삼일공고 야간반 학급을 방문해 '일일교사'로 교단에 서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야간 상고를 다녀야 했던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면서 학생들이 긍정적 사고로 꿈을 잃지 않으면 각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5월 12일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마이스터고 확대 등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 방안은 현재 6백21개인 전문계고를 2015년까지 마이스터고 50개, 특성화고 3백50개교 등 4백 개교로 정예화해 취업 전문 교육기관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3백 개교는 일반계고, 통합형고, 예체능 중점고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문계고는 아울러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산학 취업연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교육개혁 로드맵은 착착 진행 중이다. 한편 5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는 2011년부터 초중등학교에 도입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 활동자원'을 연계하고 강화하는 교류협력협정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2개 기관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정부 부처와 지역사회가 가진 인적, 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강화 효과를 높이겠다는게 취지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도 협력해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G

글 · 최은숙 기자

자율고·기숙형고·마이스터고 등… 학교들의 大변신

다양한 교육이 '창의 인재' 만든다

학교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학교 경영과 교과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고, 농산어촌의 낙후지역 학생들을 지원하는 기숙형고교, 기술 명장(明匠)으로 가는 길을 터줘 졸업 전 취업을 '예약'하는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학교들이 생겨나 글로벌 시대의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다.

일러스트 · 김영민

"5분을 걸어 들어오면 24시간을 책임지겠다." 2008년 초, 개교를 앞둔 구현고교(서울 구로구 구로동) 한명복 교장의 호언장담이었다. 구현고는 대로변에서 공장 건물들 사잇길로 5분쯤 걸어 들어와야 보인다. 설마 이런 데 학교가 있으랴 싶은 옛 공장 자리에 개교한 구현고에 자녀를 보내야 할지 반신반의하는 학부모들에게 초대 공모 교장으로 부임한 한 교장은 '24시간 케어 프로그램'을 약속했다.

결과는? 구현고는 약속을 지켰다. 구현고 학생들은 원하면 학교에서 24시간 지낼 수 있다. 구현고 안의 '작은 학교들' 덕분이다. 먼저 아침 7시 반이면 '개미학교'가 문을 연다. 개미학교에서는 월요일엔 리더십 훈련, 화·목·토엔 영어와 수학, 수·금에는 독서를 한다.

7교시 정규수업이 끝나면 전교생이 '디딤돌 기초학교'에서 복습 위주로 수업을 받는다. 저녁식사 후 밤 8시까지는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는 '디딤돌 심화학교' 시간이다.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반딧불학교'에서 밤 10시 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할 수 있다. 이 시간에 교사와 학생이 일대일 멘티·멘터로 공부하는가 하면, 인터넷 강의를 듣기도 한다. 반딧불학교 참여율은 83퍼센트. 집이 멀거나 그 후에도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학생은 4층 전인교육관(70석)에서 공부하다 잠을 자도 된다.

정경택 기자

자율형 공립고인 구현고(서울 구로동)는 개미학교, 반딧불학교 외에도 희망과목 집중이수제, 교과교실제 등 파격적인 교육실험을 하고 있다.

정경택 기자

구현고 한명복 교장은 교장실에 전교생의 사진을 붙여놓고, 학생들의 고민 상담까지 해준다.

'24시간 케어' 구현高 개교 2년 만에 경쟁률 7.6 대 1

이처럼 24시간 프로그램을 갖춘 구현고는 '사교육비 줄이기'의 살아 있는 모델이라고 한 교장은 자신 있게 말한다.

"전교생 8백37명 중 5백명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책상을 갖추는 등 고급 사설 독서실에 버금가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사설 독서실비가 1인당 월 12만원이라고 치면 연간 1백44만원을 절약하는 셈이고, 5백명이면 무려 7억2천만원이 절약됩니다. 디딤돌학교에선 학원 강사 대신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공부를 지도하니 한 달 수십만원의 학원비로 치면 전교생이 1년에 수십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셈이 나와요. 서울 시내 3백8개 고교가 다 저희 구현고처럼 사교육비를 줄이면 천문학적인 경제효과가 있겠죠."

구현고의 갖가지 '교육실험'은 파격적이다. 희망과목 집중이수제, 교과교실제, 1교사 1대학 진학 컨설팅, 전 교사 자기수업 촬영 등 공부와 진학 관련 프로그램은 물론 실력, 인성, 사회공헌력을 고루 갖춘 전인교육 프로그램도 시도하고 있다. 5무(無) 운동(흡연, 폭력, 수업시간 졸기, 휴대전화, 지각 없애기), 격주 홀몸노인을 위한 봉사활동, 연 1회 해외문화 봉사활동 등이 전인교육 프로그램들이다. 이에 흥미를 느낀 일본 도쿄시립대 연구자들이 매년 구현고를 방문해 추적조사를 하고 있을 정도.

최근 이 학교에 부임한 박보영(25) 수학교사는 "학생들이 밝고 인사성이 바른 데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큰 데 놀랐다"고 말했다. 3학년 고정우 학생은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구현고는 학생을 다빈치형 인재, 즉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구현고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자랑스러워했다.

구현고의 학업 성취도는 놀라울 정도. 자율형 공립고인 구현고는 구로구 거주자 60퍼센트, 다른 지역 거주자 40퍼센트 비율로 성적과 무관하게 학생을 뽑는다. 2008년 개교 당시 구현고 1학년의 학력 수준은 서울지역 고등학교 평균을 밑돌았지만, 그해 10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5개 과목 모두 서울시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구현고는 지난해 〈국민일보〉가 조사한 서울지역 선호고교 순위에서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학교들에 이어 상위 14위에 오르기도 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올

보성고

기숙형고교인 보성고(전남 보성)는 기숙사생들에게 입학사정관제 대비 관리를 해주는 등 지역사회에 교육 열기를 일으키고 있다. 보성고 학생들의 아침 체조시간.

해 입학 경쟁률은 7.6대 1을 기록했다.

구현고는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다양화 및 자율화 정책을 잘 반영한 자율형 공립고의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자율형'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율형 공립고나 자율형 사립고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폭넓게 부여한 학교. 구현고처럼 다양한 교육실험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전국에는 내년에 개교할 학교를 포함해 자율형 공립고 44개교, 자율형 사립고 43개교가 지정돼 있다. 특히 정부는 구현고처럼 주변 환경이나 교통 여건이 불리한 지역과 농산어촌 낙후지역, 신설학교 등을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해 학교당 연간 2억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 단위의 공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등학교 체제

현재		정비 후
일반계고		'일반계고'로 유지
전문계고, 전문계 특목고, 특성화고		'특성화고'로 일원화
특목고 9개 계열 전문(농, 공, 수산, 해양),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 계열	⇨	'특목고' 4개 계열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고		새로운 유형인 '자율고' 신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에도 비싼 등록금에 따른 '귀족학교' 논란을 막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정원의 20퍼센트 이상 선발해 학비를 지원한다.

기숙형고교는 농산어촌, 도농복합시 등의 학교에 기숙사를 설치해 학생들이 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학교다. 낙후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8년 82개교, 2009년 68개교 등 전국에 총 1백50개 기숙형고교를 선정하고 기숙사 시설비, 학교 컨설팅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에 선정된 기숙형학교 중에서 본받을 만한 기숙형학교 6개교를 선정했다. 공립 기숙형고교로 나주고(전남 나주), 서천여고(충남 서천), 김제여고(전북 김제), 장호원고(경기 이천), 성환고(충남 천안), 사립 기숙형고교로는 충원고(충북 충주)가 뽑혔다.

"기숙형 학교 인기… 대기자 줄 서 있어요"

이들 학교는 기숙형고교는 물론 일반학교에도 확산 가능한 자기주도학습 모델, 입학사정관제 대비 학교생활관리 모델, 기숙사 내 동아리 활동 모델을 독창적으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보성고(전남 보성)는 2008년 기숙형고교로 선정된 후 2년

연속 기숙형고교 연구학교로 주목받고 있는 학교다. 전교생 3백33명 중 1백80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생들에게 입학사정관제 대비 성적 관리와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특징이다. 선후배와 교사·학생 간의 멘터링 제도, 주요 과목 팀장제 탐구반 외에 판소리, 문학기행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강화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보성고의 박혜경 국어교사는 "농어촌 학생들은 학교에서 먼 곳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시설이 좋은 기숙사에 들어가면 통학시간을 절약해 공부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다. 대기자가 줄을 서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의 이태근 주무관은 "낙후지역에 기숙형고교가 생김으로써 시군구 지자체, 지역 장학회 등 지역사회가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된 것이 큰 수확"이라고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존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고를 묶어 '자율고'로 통합 정비할 방침이다. 복잡한 기존 자율형 학교 체계를 '자율'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것이다. 이들 자율고는 학교를 경쟁력 있게 경영하도록 교장공모제를 적극 시행한다.

"글로벌 인재 육성·사교육비 절감 크게 기여"

올 하반기에는 특목고 분류도 단순해진다. 농, 공, 수산, 해양 등 4개 전문 계열을 포함해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 계열 등 9개 계열이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 등 4개 계열로 통합되는 것.

전문계고 체계도 단순하게 개선된다. 지난 5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선 전체 전문계고를 '분야별로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즉, 현재 마이스터고(21개교), 특수목적고(선원, 자영농 등 특수 분야 인력 양성 40개교), 특성화고(디자인, 게임 등 교육과정 특화 1백68개교), 일반 전문계고(2백75개교), 종합고(일반교육과 직업교육 병행 1백87개교) 등 모두 6백91개 전문계고를 2015년까지 마이스터고(50개교), 특성화고(3백50개교), 일반계고(2백91개교)로 재편성한다.

이와 같은 직업교육기관 체제 개편을 위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선(先)취업 후(後)진학 체제 구축 ▲재정지원 및 평가관리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산학협약으로 취업 걱정 끝"

마이스터高 2015년까지 50개교로 확대

경북 구미의 구미전자공고(구미공고) 3학년 학생 1백명은 이미 취업이 확정됐다. 같은 지역에 있는 LG이노텍이 이들을 채용해 벌써 직업훈련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2학기에는 1, 2학년 학생들 중 일부를 선발해 'LG이노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교 졸업자의 대기업 입사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것을 생각하면 파격적인 사례다. LG이노텍은 취업훈련을 해주는 동시에 장학금과 비품을 덤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구미공고는 5월 3일 한일 합작 LCD, LED 제조회사인 루셈과 취업약정을 맺어 70명을 취업시키기로 했으며 앞으로 LG디스플레이, LG전자 등으로 채용협약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미공고의 최창원 마이스터부장은 "산업체 출신인 최돈호 교장(LG전자 상무 역임)이 공모 교장으로 지난 2월 학교에 부임한 후 산업체 동향과 기술 및 인력 수요를 예측해 산업 맞춤형 교과를 편성하는 등 긴밀하게 산학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충북 반도체고는 학생 20명을 선발해 '하이닉스 프로젝트반'을 운영하고 있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산학겸임교사를 파견하고 교재, 교원 연수, 기자재 등을 지원할뿐더러 저소득 학생을 위해 연 1천2백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내고 있다. 하이닉스 반도체와 충북 반도체고 간 취업협약을 위해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참여한 가운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전국 21개 마이스터고에서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2008년 첫선을 보인 마이스터고는 기술장인을 양성하는 학교로 항공, 반도체, 모바일 등 유망산업 분야를 다룬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마이스터고를 졸업해서 4년간 직장에서 일하면 대학을 4년간 다닌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며 마이스터고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 21개교인 마이스터고를 2015년까지 50개교로 늘릴 예정이다.

구미공고

경영자 출신인 구미공고 최돈호 교장(뒷줄 가운데)은 유망산업 맞춤형 교과과정을 도입했다.

내년도부터 교육과정 어떻게 바뀌나

학습 부담은 줄이고 수업은 심도 깊게

사교육 열기에 눌려 기를 펴지 못하던 학교가 '즐거운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학습 부담을 줄이고 공부 흥미를 높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다. 새 교육과정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토론이 이뤄지는 교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꿈과 적성을 찾아나가는 수업을 지향하며 공교육의 모범답안을 보여준다.

조영철 기자

#1 "학교가 재밌어요." 서울 동작구 대림초등학교 학생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외친다. 대림초교 교사들은 그 비결을 '학교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교육과정'에서 찾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선도학교인 이 학교는 지난 3월부터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해 학생 스스로 소질과 적성을 찾고 특기를 키울 기회를 주고 있다. 이와 병행해온 전입 학생을 위한 보충학습, 수업의 효율성 증대에 목적을 둔 블록타임제도 반응이 좋았다.

김정희 교감은 "학생들의 개인차를 배려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지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지속적으로 실현됐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2 지난해 교육과정 혁신학교로 선정된 서울 동대문중학교는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으로 구비시설을 완비한 교과교실을 활용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심층교육이 필요한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병행한다. 또한 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한문, 중국어 교과에는 집중이수제를 적용하고 1교사 1동아리반을 편성해 학생들의 재능과 특기를 키워주고 있다.

윤영준 교감은 "선진형 교육과정을 적용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무엇보다 '왕따'가 사라지고 학습 열의가 높아지는 등 수업태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전했다.

조영철 기자

▲수학 등 심층교육이 필요한 과목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중학교.
◀서울 창문여고 학생들은 집중이수제와 교과교실제를 실시한 후 수업 참여도와 학습 의욕이 고취됐다.

단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문제가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주입식 교육으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매 학기 거의 모든 기본 교과목을 배워야 하는 기존 교육방식은 학습 부담을 가중하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말, 학습 부담을 줄이고 공부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체험과 봉사, 진로교육 등 폭넓은 인성교육이 가능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2011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대표적 변화 중 하나는 집중이수제다. 집중이수제는 여러 학기에 걸쳐 나눠 배우던 교과목을 한 학년이나 한 학기에 집중해서 이수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과도한 학습이나 과제, 시험 부담을 덜어준다.

교사도 교과의 수업시간 운영방식을 개선해 토론, 작품활동, 실험실습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심층수업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뿐 아니라 모든 교과가 될 수 있으며 학교가 학생들의 특성과 발달단계를 고려해 결정한다.

집중이수제 도입해 이수과목 8개 이하로 줄여

이 제도가 실시되면 학기당 이수하는 교과목 수가 현재 12과목 안팎에서 8과목 이하로 줄어 학생들의 개인차를 반영

정경택 기자

서울 대림초교 학생들이 선생님과 주먹밥 만들기 실습을 하고 있다.

한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해진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과목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집중이수제는 교과군과 학년군을 도입해 추진된다. 교과군은 기존의 교과들을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이나 방법상의 인접성, 실제 생활양식에서의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해 광역군 개념으로 묶은 것.

학년군의 경우 초등학교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의 3개 학년군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의 3개 학년을 각각 1개 학년군으로 설정함으로써 학년별, 학기별, 분기별 집중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도 도입된다.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름 붙이고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금보다 질적으로 더욱 내실화하고, 고등학교는 현행 주당 2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시간을 확충해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집중이수제는 교과군과 학년군을 도입해 추진된다. 학년군의 경우 초등학교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의 3개 학년군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의 3개 학년을 각각 1개 학년군으로 설정함으로써 학년별, 학기별, 분기별 집중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철저히 창의성과 인성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으로 나눠 운영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식과 인성을 고루 함양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육과정의 일반적 추세이기도 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 결과는 상급학교 진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입학사정관제 등과 관련해 또 다른 의미에서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숙정 교육과정기획과장은 "창의적 체험활동이 공교육 테두리 안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교육에 의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핵심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이수기간도 단축했다. 현행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을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10개의 기본교과를 획일적으로 학습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과정은 이수기한을 중학교 3학년까지로 조정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진로와 적성, 필요에 따른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지식·인성 겸비한 인재 육성

이는 고교 단계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원하는 공부를 더 깊고 넓게 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추구해온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국어, 수학, 영어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초교육은 강화하는 한편,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개별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교육과정의 자율화다.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23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올해 시범 적용할 '2009 개정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를 선정해 발표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통해 초등학교 68개교, 중학교 66개교, 고등학교 66개교 등 총 2백 개교가 선정됐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창문여고 등 45개 학교가 '교육과정 혁신학교'라는 문패를 달았다.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이들 학교에는 지난해 교과교실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건축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 15억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교사 인력과 행정보조 인력을 확보하는 데 지원하고 있다.

선도학교·혁신학교 등 새 교육과정 평가 호평

이들 선도학교와 혁신학교 내에서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창문여고 최영현 교감은 "교과교실제와 집중이수제를 실시하면서 교사의 태도도 한층 진지해졌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학습 의욕도 고취됐다"며 흡족해했다.

이어 그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의 학습 효과를 내기 위해 애쓰는 교사들의 긴장된 눈빛에서 우리 교육계의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한국형 청소년 성취 포상제 개발할 것"

여성가족부도 청소년의 체험활동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5월 18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학부모, 교원 등과 의견을 나눴다. 이 방안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과제인 '창의적 체험활동'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 인프라(프로그램, 시설, 지도자 등)를 적극 연계한 데 의미가 있다.

세부 방안으로는 친환경 녹색성장, 사회적 나눔 등 새로운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지역 특성 및 문화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이 거론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들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들에게 보급할 방침. 국제적으로 효과가 인정된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도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운영기관을 확대하고 14세 미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내형 성취포상제도 개발해 시행할 계획이다.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는 포상단계(금장, 은장, 동장)별 성취목표를 달성하면 국제적인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영국, 캐나다, 독일 등 1백31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시설에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학교 컨설팅을 지원하고,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기존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특성화, 전문화된 체험시설로 만들어나갈 계획도 세워놓았다. 청소년 지도사와 상담사의 체험활동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청소년단체의 체험활동 지도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이재복 청소년역량개발과장은 "청소년 수련활동인증,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 청소년 자원봉사, 청소년 종합정보 등 청소년 개별 시스템을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 '창의체험 자원제도'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항공산업에 적용되는 이론이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월 과학중점학교의 수학, 과학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연수 캠프를 마련했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최고' 선생님

수석교사·우수교사 인증제 등 도입… 수업 전문성 높여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수업을 잘하는 것이다, 이는 공교육 강화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정부는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고, 수업공개 활성화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수업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안녕! 난 호돌이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매일 운동을 한단다!" "난 쥐돌이야. 밤늦게 배불리 먹고 늦잠을 실컷 잔단다!"

이헌성(38) 교사가 호랑이와 쥐 가면을 번갈아 써가며 좋은 습관을 가진 호랑이와 나쁜 습관을 가진 쥐를 코믹한 목소리로 연기하자 아이들은 신이 났다.

"여러분이 가진 나쁜 습관은 무엇인지 말해볼래요?"

"컴퓨터를 오래 해요." "TV를 많이 봐요."…

이 교사는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모둠별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찾고 실천 계획서를 만들도록 했다. 협의 안건이 적힌 종이에 한 사람이 3개의 아이디어를 적고, 다음 사람이 이를 참고해 3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브레인 라이팅(Brain Writing) 기법이다.

이렇게 하면 소극적인 아이들도 자신의 생각을 내놓고, 짧

경북교육청이 선정한 '수업 명인'인 경북 구미시 비산초등학교 이헌성 교사(왼쪽)는 수업을 즐겁게 하기 위해 다양하고 익살스러운 캐릭터를 연기할 때가 많다.

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브레인 라이팅은 아이들을 '발표왕'으로 만들었다.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계획서를 만들어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역할을 나누고 협동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모둠별 발표가 끝나자 이 교사는 의사로 분장을 하고 호흡기, 순환기, 배설기, 뼈와 근육 등 우리 몸의 기능과 잘못된 습관으로 생기는 질병을 쉽게 설명했다.

"수업을 즐겁게 하기 위해 다양하고 익살스러운 캐릭터를 연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수업에 주안점을 둡니다."

경북 구미시 비산초등학교 이헌성 교사는 경북교육청이 선정한 '수업 명인'이다. 2006년 전국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대회에서, 지난해에는 경북 창의성교육연구대회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 교사는 경북 영재교육지원단과 창의성교육지원단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 컨설팅도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수업은 아이들을 '발표왕'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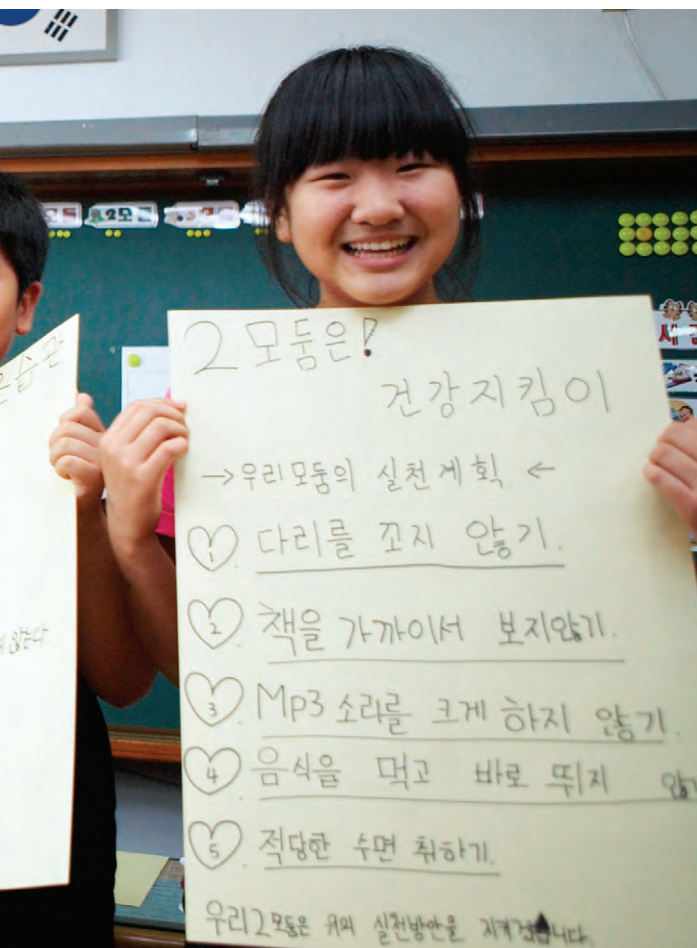
경기 용인시 이동초등학교 홍미경(46) 교사도 학생들과 경기교육청이 인정한 '수업 명인'이다. 2006년부터 4년 연속 교육청의 '좋은 수업 만들기 국어과 1등급'을 받았다.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춤을 추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홍 교사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일단 학교에 오는 것이 행복해야 한다"며 "즐겁게 수업을 하면 학습 동기는 저절로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홍 교사는 3년 전부터 수석교사로 이 같은 수업철학을 후배 교사들에게 전수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에서 '신나게 가르치는 즐거운 학급 경영'을 주제로 강의도 한다.

우수교사 인증제 도입… 포상·연구비 등 지원

무형문화재에만 명인이 있는 게 아니다. 학교에도 수업의 명인들이 있다. 수업을 잘하는 것은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며 공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부는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고, 수업 전문성을 높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수업 잘하는 교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수교사 인증제를 확대 실시한다. 학생, 학부모의 수업 만족도와 교육과정상 학습목표 달성도를 높이는 데 탁월한 교사를 교육감이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시도별로 '수업 명인' '으뜸 선생님' '수업 선도교사' 등의 이름으로 우수교사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수교사 인증제의 확산을 위해 교과별, 우수기법별 우수교사 인증제 프로그램을 공모 중이다. 또 우수교사 인증을 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포상, 승진 가산점 부여, 연구실적 평정점 부여, 연구비 지급, 교원 양성기관 출강 등을 지원한다.

조영철 기자

경기교육청 선정 '수업 명인'인 경기 용인시 이동초등학교 홍미경 교사는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스타다. 아이들을 하나하나 배려하고 신나게 수업을 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영지원과 박인옥 연구사는 "우수 교사 인증제가 실시되면 교사가 좋은 수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수업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고, 수업 잘하는 교사를 존경하는 풍토도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석교사제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교사들을 배려한 제도다. 현행 교사의 자격과 승진체제는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단선화돼 있어 교감, 교장이 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교수직 중심으로 자격 경로를 신설함으로써 교장, 교감의 관리직 우위 풍토를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로 전환하고 과도한 승진 경쟁을 해소하기로 한 것.

학기별 2회 이상 수업 공개 의무화

수석교사는 수업장학,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의 개발 보급, 교내 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을 담당하고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 강의 등을 수행한다. 수석교사에게는 1호봉 승급, 연구활동비 지급, 40퍼센트의 수업시수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수석교사제는 2008년 3월부터 3기에 걸쳐 7백99명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교장 및 교감의 71.7퍼센트, 일반교사의 64.1퍼센트가 '수석교사제가 교내 연수 및 장학 활성화,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자극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석교사의 수업시수 감축 문제, 부장교사에 비해 불리한 근무평정과 성과급 등은 수석교사제 법제화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혔다.

수업 공개를 의무화한 것도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모든 교사가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또 내실 있는 수업 공개를 위해 자기 수업 모니터링과 동료교사 간 수업 참관을 활성화하고, 경력교사와 신규 교사 간 수업 멘터링제도 실시한다.

홍미경 수석교사는 "교육 노하우를 후배 선생님들에게 알리는 일에 보람을 느끼지만, 현장에서는 수석교사라고 해서 담임을 맡지 않거나 수업을 줄이기 힘들어 어려움이 많다"며 "수석교사에게 수업전문가뿐 아니라 장학사나 초빙교장 등

다양한 길을 열어준다면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업 공개를 의무화한 것도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수업 공개는 지금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교사가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또 내실 있는 수업 공개를 위해 자기 수업 모니터링과 동료교사 간 수업 참관을 활성화하고, 경력교사와 신규 교사 간 수업 멘터링제도 실시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안명수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수업 공개는 평상시 수업을 동료교사와 학부모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업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수업의 질을 높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임용단계도 개편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도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근무성적평정이 승진, 전보 등 인사에 활용되고, 성과급평가가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에 비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는 인사, 보수 등과 연계하지 않는다. 우수자에게는 학습연구년제 등의 심화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미흡자에게는 등급별 의무연수가 부과된다.

학습연구년제는 1년간 연구 또는 연수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제도로 호주, 독일,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박형식 사무관은 "우리나라 교사들은 교직에 들어와 20~30년간 동일한 직무를 하면서 심층적인 전문성 개발 기회가 부족하다"며 "학습연구년제로 현장감 있는 연구 결과물이 축적돼 활용되면 우리 교육이 한층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치뿐 아니라 교원 양성과 임용 단계도 개편된다. 올해부터 사범대, 교대,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행정·재정적 지원 또는 제재와 연계한다. 교원 양성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해 교사 임용 시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수업 전문성 평가를 강화한다. 현재 10분인 수업 실연시간을 20~30분으로 확대하고, 수업 실연 배점을 약 10점씩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각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실시 전체 평균 만족도 높아져

2007년부터 3년간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였던 서울대사대부설여중은 학생들의 교사 만족도 조사에서 자유서술형 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교사들에게 가장 많이 나온 지적 사항 5가지를 개별적으로 공지했다. 한 교사는 "그냥 5단계 만족도 점수만 받았다면 뭐가 부족한지 잘 몰랐을 것"이라며 "아이들의 자유반응식 만족도 조사가 수업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10년간 논의돼온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올해부터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전면 실시됐다. 지난해 3천1백64개교의 시범 선도학교 운영을 거치면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국민(86.4퍼센트)과 교원(69.2퍼센트)의 합의에 따라 학교 현장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영역을 학습지도, 생활지도 및 학교 경영으로 나눠 이를 담당하는 교사 및 교장, 교감에 대해 학교 구성의 3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가 동료교원평가 또는 만족도 조사의 형태로 참여하는 제도다.

교육과학기술부 정종철 교직발전과장은 "교원 사회에 평가 결과를 승진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하거나 성과급 등 보수에 반영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도입 취지에 맞춰 연수 등의 자료로만 활용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사들 사이에서는 다른 교사의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교 경영에 대한 평가를 받는 교장, 교감들도 바뀌고 있다. 교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외부 강사를 초청하거나 자체 연수를 하는 등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신뢰도 높은 평가를 하기 위해 긴장하는 분위기다. 중학교 2학년생 딸을 둔 최은미 씨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챙겨보는 것은 물론, 수시로 아이에게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되도록 참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교원능력개발평가로 교사가 소신을 갖고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를 보는 부작용이 생길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려는 교사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학교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서울대사대부설여중 이홍자 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열고 더 좋은 수업과 학교 경영에 대해 논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 · 유인식(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연구관)

수업 전념하게 행정업무 확 줄인다

정부는 학교로 보내는 공문을 절반으로 줄여 교사들이 수업과 교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턴교사를 증원 배치해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교무행정 업무 등을 지원한다.

대다수 교사들은 수업보다 행정업무 처리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2월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교원의 71퍼센트가 "업무가 많다"고 응답했고, 업무 부담 요인으로 공문서 처리, 인턴교사 등 보조인력 부족과 같은 행정업무 부담을 많이 꼽았다.

실제로 학교들이 받는 공문은 계속 늘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선 2008년 5천9백61건이던 공문이 지난해에는 6천4백44건으로 늘었으며, 올 들어선 4월까지만 2천2백90건이나 됐다.

공문의 44퍼센트는 안내공문이었지만 실적 제출, 국정감사 요구자료 등 업무 부담이 큰 공문도 전체의 19퍼센트나 됐다. 더욱이 각종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의 경우 작성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중복 요청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려면 수업자료도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 교수법도 연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공문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뺏기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사가 잘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 외에 처리해야 하는 공문의 양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학교 포털사이트 개설해 통계 공문 입력 수고 덜어

우선 학교에서 기본 자료 입력 외에는 통계공문을 처리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앞으로 교사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Edufine),

조영철 기자

수학 과목의 수준별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을 맡고 있는 서울 광장초등학교 이진효 인턴교사는 "개별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자신감과 실력을 길러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철 기자

통계자료 업무처리 절차 개선도

현재: 교과부 ⇄ (자료 요구 / 자료 제출) ⇄ 시도교육청 ⇄ (자료 요구 / 자료 제출) ⇄ 단위학교

개선 후: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 (자료 요구 / 자료 제공) ⇄ 통계처리 전담기관 DB 구축 및 처리 ← (기본자료 입력) ← 단위학교

학교정보공시 등에서 요구하는 기본 자료만 입력하면 된다. 통계처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시도 교육연구원에 통계 자료 전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한다.

단위학교로 가는 공문도 50퍼센트 이상 줄인다. 단순 안내 공문은 전자문서 게시판으로 대체하고, 각종 문서 처리 및 보고를 전자적으로 시행한다는 것. 이에 따라 2011년까지 전국 학교에 전자문서 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화담당관실 정대영 사무관은 “학교에서 나이스, 에듀파인, 전자문서 시스템 등을 모두 사용해야 하지만 단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포털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순회교사와 인턴교사를 활용해 교원의 업무 편중을 덜어주기로 했다. 부장교사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교사는 수업시수를 경감하고, 경감된 수업시수만큼 순회교사나 기간제 교사 등을 채용한다는 것이다.

인턴교사는 학생 수에 비해 교사가 부족한 학교 현장에 배치됨으로써 학생 개개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고,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 수업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교육청에 소속된 순회교사는 지난해 전체 공립교원의 2.37퍼센트인 7천8명이지만,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집중이수제 등이 도입됨에 따라 1만5천여 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는 순회교사로 전환하고, 순회교사에게는 전보 시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인턴교사도 크게 늘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7천명인 인턴교사를 올 하반기에 3천명 더 뽑아 1만명을 교육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개별지도가 필요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나 학업중단 학생 예방 업무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서다.

인턴교사의 활용은 학생, 학교, 예비교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학생 수에 비해 교사가 부족한 학교 현장에 인턴교사가 배치됨으로써 학생 개개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고,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 수업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예비교원에게는 학교 현장의 경험을 쌓고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 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인턴·순회교사 배치해 수업·행정업무 등 지원

협성대 김성기 교수가 한국교육개발원의 협조로 전국 학교의 인턴교사 5천32명, 교원 4천6백7명, 학생 2천7백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도 학습보조 인턴교사 사업성과 분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턴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8월 말부터 서울 광장초등학교에서 근무해온 이진효(32) 인턴교사는 5, 6학년 수준별 수학수업과 4학년 축구부 방과 후 보충 수학수업, 6학년 방과 후 학습부진 학생 수학수업을 맡고 있다.

그는 “수학 과목의 경우 학생 개개인의 실력 차이가 있지만 학생 수가 많아 선생님들이 일일이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인턴교사가 수준별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실력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턴교사지만 항상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지 생각한다”며 “미래에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인턴교사는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지만 반드시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인턴교사 채용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지만, 인턴교사의 임용자는 학교장이므로 근무를 원하는 학교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G

글 · 이혜련 기자

우리 학교가 달라졌어요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로 달라진 교육 현장

학교는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발전소'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유연한 사고방식과 다양한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지난해 학교 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방안이 추진되면서 자유로운 학교 경영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꿈 키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조영철 기자

서울 영림초등학교는 이경희 교장의 아이디어로 국내 최초의 담임실명제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열중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얻었다.

학교가 바뀌고 있다. 지난해 6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정책의 큰 흐름 중 하나로 '학교 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방안'을 추진했다.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는 단위학교 구성 주체들이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다. 자율과 책무를 조화시키는 학교 경영 모델이라고 보면 된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여건에 맞는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 자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과정 자율화 ▲교직원 인사 자율화 ▲자율학교 확대 ▲학교장 책임강화 등 크게 네 가지 과제로 이뤄진 이들 방안은 특히 학교 운영에서 학교장의 권한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교장공모제가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 경쟁을 통해 선발된 능력 있는 학교장이 일선에서 진두지휘해 학교 경영 자율화를 이끌어가자는 것이다. 학교장에겐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에 관한 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결정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를 중심(일반학교 초빙교장제 포함)으로 2007년 9월 1차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올해 9월 시작하는 6차 시범 운영에선 전국 시도교육청 교장 결원 예정 학교 수의 56퍼센트에 달하는 4백30개교에서 실시될 예정

이다. 이에 따라 교장공모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 인원을 늘리고, 공모교장 경쟁률을 10대 1 수준으로 높여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이 완벽하게 시행되기까지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 자율경영을 이뤄낸 사례가 소중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그간 교장공모제로 학교장이 된 뒤 공교육 우수 사례를 일궈낸 학교들을 소개한다.

서울 영림초교 이경희 교장
담임실명제·학년중임제로 효과적 학습지도

"저는 1학년 이화영 선생님 반입니다."

서울 영림초등학교 학생들은 '1반' '장미반'과 같은 이름 대신 담임선생님 이름을 반 이름으로 사용한다. 지난해부터 도입한 '담임실명제'는 이경희 교장이 낸 아이디어다.

2004년 9월 이 학교로 부임한 그는 학교를 둘러보고 깜짝 놀랐다.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조그마한 5층짜리 건물 하나가 전부인 학교는 시골 분교보다 못했다. 교사들이 "그저 부임 기간만 버텨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그러나 꿈나무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담임실명제에 이어 모든 수업을 무선마이크로 진행하는 등 변화의 씨앗을 뿌려갔다. 선생님뿐 아니라 학생들도 마이크로 발표하고 답하면서 집중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얻어갔다. 올해 봄부터는 교사가 같은 학년을 계속 맡도록 하는 '학년중임제'와 모든 학년에서 영어와 수학의 수준별 수업도 실시하고 있다.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교장공모제를 통해 영림초교에 계속 근무하게 된 이경희 교장은 "교육 현장의 개혁은 공급자인 교사와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교집합'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 양천중 홍석 교장
체계적 진로교육으로 '꿈'을 키운다

"제 꿈은 호텔리어입니다. 서울 힐튼호텔에서 직접 호텔리어를 만나 체험을 해보니 제게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됐어요."

직업체험교육을 받은 서울 양천중학교 학생의 발표 사례다. 양천중학교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지역에 있어 한때 교사와 학생들에게 기피 대상 학교였다. 그러나 2007년 교장공모제로 부임한 홍석 교장이 부임한 뒤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된 결과다.

와부고

경기 남양주시 와부고등학교는 이색 교과과정을 도입해 학생들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준다. 사진은 매주 수요일 전교생이 함께 배우는 검도 시간.

홍 교장은 학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꿈'이라는 것에 주목해 맞춤식 진로상담 활동,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진로 포트폴리오를 위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가정형편에 맞춰 고교 진학을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 진로교육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고교 진학 상담자가 크게 늘었다.

홍 교장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하다 보니 그만큼 학교에 대한 애정도 커지고 학업에도 매진하게 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경기 와부고 김학일 교장
경기 첫 개방형 자율학교 '가고 싶은 학교 1위'

경기 남양주시에 자리한 와부고는 지난해 공교육 성공 사례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학교. 경기 지역 첫 개방형 자율학교(현 자율형 공립고)로 2008년 개교한 와부고는 교장공모제로 부임한 김학일 교장이 기틀을 세웠다. 교사들도 모두 초빙돼 적극적인 자세로 학생들을 이끈다.

11월이 되면 와부고는 다양한 색상의 교복을 입은 중학생들로 붐빈다. 고교 입학 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초과정을 가르치는 것.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고안됐다.

등교 후 자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아침학교'를 운영해 뇌호흡, 필독서 읽기 등을 진행하거나 수업시간을 두 시간씩 묶어서 가르치는 '블록 타임제' 도 실시하고 있다. 개교 2년 만에 와부고는 경기도 내 중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은 1위 학교로 부상했다.

김 교장은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이란 두 가지 과제를 충족시키며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켜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G

글 · 김민지 기자

장학사, 이젠 '교육 컨설턴트'

지역교육청 '교육지원' 기능 대폭 강화

교육청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학생들은 책을 덮고 청소와 교실 꾸미기에 매달려야 했다. 학교나 교사는 가르치는 일보다는 행정적 점검, 감독,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이제 '장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교육청이 행정 위주의 장학 대신 교원들의 교육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학교 받들기' '눈높이 교육 지원'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김가연(가명·26)씨. 1년 전 교대를 졸업하고 교사로 임용됐지만 그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걱정이 많았다.

"학생들이 제 수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수업 분위기도 점점 나빠졌어요."

그렇다고 동료 선생님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자니 자존심이 상했다. 김 씨의 고민을 해결해준 것은 관할 부산남부교육청이었다.

지난해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방안' 시범 지역교육청으로 선정된 부산남부교육청은 학교,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올해 2월부터 '학교컨설팅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김 씨의 눈이 번쩍 뜨였다.

부산남부교육청은 지원센터에 '수업' '학교 경영' '교육과정' '학부모 교육' '맞춤형 연수' 등 5가지 영역의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 씨는 이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수업 컨설팅을 받기로 하고,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얼마 뒤 교육청에서 컨설턴트가 김 씨의 컨설팅 의뢰를 수락했다는 통보가 왔다. 부산남부교육청의 수업 컨설팅 담당 장학사가 '컨설팅 플래너' 역할을 맡아 컨설팅 날짜와 준비사항 등을 친절하게 챙겼다.

부산남부교육청은 '학교컨설팅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김 씨는 자신의 교수학습을 지원한 컨설턴트의 이력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주변 선생님들한테서 덕망이 높고, 수업능력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자자하던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것.

김 씨는 이 교장 선생님에게서 수업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일대일 컨설팅을 수차례 받았다. 먼저 지도안 작성에 대해 조언을 들었고, 다양한 교수법 등을 전수받았다. 그 다음에는 컨설턴트가 직접 참관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해본 뒤 개선점을 수정하는 식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담임 장학' 제도 폐지… 영역별 컨설팅 관리자로

컨설팅을 마친 김 씨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아이들의 수업 태도도 분명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김 씨는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후기를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

"지역교육청과 교사는 이제 같은 눈높이에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교육청에 대해 몸을 낮춰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지원청'으로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학교별로 장학사를 지정해 학교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감독해오던 행정적 성격의 '담임 장학' 제도를 폐지했다.

장학사들의 역할도 바뀌고 있다. 부산남부교육청 장학사들의 직함 앞에는 학교명 대신 영역별로 '컨설팅 관리자'라는 명칭이 새로 붙었다.

부산남부교육청의 경우 특히 교육 현장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수업 컨설팅' 분야에 대한 지원 노력이 두드러진다. '수업 컨설팅'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앞에서 본 김 씨의 사례처럼 ▲컨설턴트가 일대일로 교사에게 교수학습 지원을 하는 컨설팅 ▲컨설턴트가 온라인에서 교사에게 컨설팅

사진 공용

부산남부교육청 수업 컨설턴트가 교사들에게 학생 지도법 등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을 하는 사이버 컨설팅 ▲단위 학교 차원에서 의뢰하는 교과 주제별 컨설팅이 그것이다.

일대일 수업 컨설팅은 교사가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컨설턴트를 직접 지명해 신청할 수 있다. 컨설턴트는 교원, 전문직, 대학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부산남부교육청 수업 컨설팅 관리자인 김창연 장학사는 "지원센터 내 초중등 수업 컨설턴트만 해도 1백여 명에 이른다"며 "일선 교사의 선배들인 교장, 교감, 수석교사 등의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서 이론적인 학생 지도법뿐 아니라 생생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어서 의뢰 교사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위기 학생·학부모 등 적극 지원

'컨설팅 장학'이 정착되기 위해선 컨설턴트 확보와 관리가 관건. 김 장학사는 "앞으로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면 컨설턴트의 수요도 늘어날 텐데, 결국 유능한 컨설턴트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백업'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지원 기능도 크게 강화한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선 개설하기 어려운 심화과정을 올해 9월부터 울산 등 5개 지역교육청에 개설하기로 했다.

학생 진로, 진학, 입시상담 센터 및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Wee 센터'도 올해 4월 현재 80개에서 2012년까지 1백 80개로 늘려갈 예정이다. 또 학부모가 학교의 교육 및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2천여 개 학교의 학부모회에 5백만원 안팎씩을 지원해 활동을 장려한다.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에도 올해 32억원을 지원할 예정.

지역교육청의 체제와 조직도 눈에 띄게 정비된다. 교육청의 최고책임자인 교육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공모제가 도입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 부산, 대구, 인천 등 학교 근접성이 높은 지역교육청의 학교 평가, 감사 등 행정 업무는 최대한 본청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최은희 서기관은 "지역교육청이 상명하달에 의한 지시나 감독 행태에서 벗어나 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 지원기관으로 전환되면 교육자치가 비로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G

글 · 유재영 기자

'교직생활 27년' 이군현 의원이 보는 교육개혁

"창의적 인재, 학교 자율에 맡겨야"

국회에서 교육전문가로 꼽히는 이군현(58) 의원. 26년간 마산 제일여중, 서울 장훈고, 한국과학기술원, 중앙대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육통'이다. 올 들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이 그에겐 남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수업을 할 때는 제가 먼저 정리해주는 대신 늘 학생들에게 팀을 짜서 토론하게 했죠. '답은 없다'고 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말하게끔 했습니다. 아마 그때 학생들은 속으로 '뭐 저런 능력 없는 선생이 다 있어?'라고 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으니까."

이 의원은 교단에 선 것은 물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실장, 교육부 교육과정심의위원, 교육부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위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해 학교 현장과 교육 행정에 두루 밝다.

그는 정부가 올해 세 차례 교육개혁대책회의를 거쳐 마련한 ▲학교 자율성 확대 ▲창의·인성교육 확산 및 평가체제 혁신 ▲교원능력 개발 및 우대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남과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플사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브 잡스는 '탁월한 사람은 그냥 뛰어난 사람보다 10배 더 뛰어나야 한다' 고 했죠. 남보다 10배 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진짜 인재라는 뜻입니다. 이런 인재를 길러내려면 학교가 자율화되고 그 속에서 창의교육이 이뤄져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정책의 방향에 공감합니다."

교장공모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학교장의 교직원 인사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한 인재를 교원으로 영입해 학생들의 선택 폭과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 의원도 "선진국에서도 이미 단위학교에서 교원을 선발한다"며 그 취지에 동의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학교의 등록금 책정권도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건학 이념에 맞는 학생을 뽑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원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크리에이티브(Creative)'한 수업지도안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등록금 책정에서 자율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는 다소 우려할 대목도 있다고 본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죠. 교장공모제는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합니다. 교육정책은 기업논리와는 다릅니다.

기업은 '바꾸자'고 하면 당장 실행되죠. 그러나 교육은 정책 시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비리 근절대책으로 교장공모제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데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취지인데…. 교장공모제의 급속한 확대로 교직 안정을 해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사들에 대한 지원 강화도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26일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앞으로 우수하고 성실한 교사에겐 능력 개발은 물론 교육 기회와 각종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업무 줄이기 '두 손 들고 환영'

이 의원은 그중에서도 수석교사제 도입은 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수석교사제가 교사→부장→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단일 승진체계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리라는 것.

"전국의 40만 교사 가운데 교장은 1만명이 좀 넘습니다. 교사에서 부장으로, 그리고 부장에서 바로 교감, 교장이 되는 단순한 승진제도 아래서 교사들은 교장이 되기 위해 목을 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인사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지만 교장이 되려는 교사 중에 진심으로 교장이 돼야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교장이 안 되면 능력이 떨어져 보이니 어쩔 수 없이 교장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20, 30년씩 오랜 경험과 연륜을 쌓은 교사들에게 '라스트 티처(Last Teacher)'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면 어떨까요."

우수교사 인증제에 대해선 전제조건을 달았다. 제도가 도입됐다고 해서 교사들을 기계적으로 '저울'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학부모, 학생들에게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

"인센티브도 좋지만 군인과 교사는 '사기'를 먹고 사는 이들입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를 선별해낸다는 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추진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학교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누가 우수교사 인증을 받았는데, 우리 담임은 인증이 없다'라는 식의 소문이 돌겠죠. 교사들이 이 제도를 자기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도 있지만 자칫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를 덜어주는

> **'시어머니'가 아무리 변한들 '며느리' 마음이 마냥 편하겠어요? 정부나 교육청이 교사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만큼, 교사들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자정(自淨)과 자기개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안에 대해선 '두 손 들고 환영'이었다.

"제가 교사일 때는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는 기본이었죠. 교사들이 자기개발을 하려면 논문도 보고, 세미나에도 다니고, 지도안도 만들어보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그렇게 일하면 집에 가서 뭘 연구할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머리가 뻥 뚫린 느낌뿐이었죠. 막걸리 한잔 마시고 쉴 수밖에요."

이 의원은 학교 현장 기능을 강화한 지방교육청의 '자세' 변화에도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지방교육청의 임무가 '지원행정'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건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라며 "관료적 냄새를 털어낸 건 정말 잘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사들 스스로도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변한들 '며느리' 마음이 마냥 편하겠어요? 정부나 교육청이 교사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만큼, 교사들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자정(自淨)과 자기개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G

글 · 유재영 기자

동아DB

교육 전문가인 이 의원은 학교 자율성 확대에 있어서 특히 학교장의 교직원 인사권 확대와 등록금 책정 자율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달라지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 나형 범위 확대 해법은 자기주도학습과 EBS 수강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탐구영역 선택과목 수가 한두 과목 줄고, 수리 나형의 시험 범위가 늘어난 것. 이에 따라 시험 대비에 혼선을 빚고 있는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공부 방법을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학입시 설명회에 학생과 학부모가 2만명 넘게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보통 자연계는 수리 가형, 인문계는 수리 나형을 선택해서 수능을 치르는데, 학습 부담이 수리 가형의 범위가 나형의 3배 이상(수리 가형은 20단위, 나형은 8단위)이어서 자연계인데도 수리 나형을 치르거나 교차지원을 하는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수리 나형은 수 I 의 범위만 수능에 출제돼 범위가 좁은 데다 상대적으로 문제가 쉬워 같은 시간을 투자해 공부했을 때 성적 향상 효과가 더 좋은 게 사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각 대학의 이공계 신입생 가운데 수학II를 배우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학가에서는 이공계 학생들이 미적분도 못 풀 만큼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수리 나형에서 미적분이 제외되는 등 범위가 크게 축소된 것은 2005학년도 수능부터다. 6차 교육과정까지는 수능 범위에 수 I과 함께 고1의 공통수학과 미적분까지 모두 포함됐는데, 7차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공통수학과 미적분이 빠졌고, 오는 2012학년도 수능부터는 다시 '수 I +미적분'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상대적으로 자연계가 치르는 수리 가형은 이전과 비교해 '행렬과 1차 변환' 한 단원이 늘어나는 정도라 이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문항 50% 출제 예정

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은 총 30문제가 출제된다. 지금까지는 수 I 뒷부분의 확률과 통계에서 9~10문제가 출제됐다. 이는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확률과 통계가 수 I에서 빠지는 대신 미적분과 묶여서 분리되는 것인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하면 수 I에서 50퍼센트(15문항),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50퍼센트(15문항)

"수학의 양극화는 매년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수Ⅰ 과정보다 훨씬 어려운 미적분까지 포함되면,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선택했거나 수학의 일정 부분을 포기했던 학생들은 3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절반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연합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받기 전 참고서와 노트를 꼼꼼히 읽고 있다.

를 출제할 예정이다.

수Ⅰ에서 분리된 통계 부분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미적분에서 8문제 안팎이 출제될 것이고 배점이 높은 3, 4점짜리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미적분에 몰린다면 미적분의 점수 비중은 8문항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공부하지 않아도 됐던 미적분을 수Ⅰ에 투자한 시간 이상으로 공부해야 하며, 따라서 수학 공부의 부담이 배 이상 높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미적분 포기하면 원하는 학교 진학 힘들수도

현장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매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후 3학년 문과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수학을 포기한다고 한다. '전체 포기'는 아니더라도 '부분 포기'하는 학생 또한 상당수에 달한다.

전국 상위 10개 대학에 진학하는 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수Ⅰ의 마지막 부분인 확률과 통계를 아예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다.

이런 실정이니 수학의 양극화는 매년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수Ⅰ 과정보다 훨씬 어려운 미적분까지 포함되면,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선택했거나 수학 일정 부분을 포기했던 학생들은 3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절반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수학을 포기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수도권 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을 맡고 있는 김미정 씨는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키우고 실력파 강사를 세우는 EBS 강의를 학원에 도장 찍듯 꾸준히 듣는다면 수학뿐 아니라 다른 과목의 문제해결 능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입시학원 수학강사인 강명선 씨는 "수학은 기초를 잘 다져놓아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자신 있게 풀 수 있다"며 "스스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면 범위가 확대돼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탐구영역의 선택과목 수가 현재 최대 4개에서 3개로 줄어든 점도 2012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큰 변화 중 하나.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3개 과목은 지금껏 해오던 것 이상으로 실력을 탄탄히 다져야 한다.

수학능력시험은 단순 암기형이 아닌 통합사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벼락치기식 공부가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어, 영어, 수학 3개 과목은 초등학교 때부터 각 해당 학년 과정을 충실하게 공부하면서 실력을 차근차근 다져나가야 한다.

수학을 싫어해서, 혹은 못해서 포기하는 부분이 생기면 인문계라 할지라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하니 초중등과정의 충실한 학습이 절실히 요구된다. G

글 · 김은실(교육 칼럼니스트)

2012학년도 수능 어떻게 바뀌나

당초		개편
사회탐구영역 : 최대 4과목 과학탐구영역 : 최대 4과목 직업탐구영역 : 최대 3과목	➡	사회탐구영역 : 최대 3과목 과학탐구영역 : 최대 3과목 직업탐구영역 : 최대 3과목
		※직업탐구영역의 경우 기존과 같이 최대 3과목 선택
가형 필수 : 수학Ⅰ, 수학Ⅱ 선택 :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1개 **나형** 필수 : 수학Ⅰ	➡	**가형** 필수 : 수학Ⅰ, 수학Ⅱ 선택 :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나형** 필수 :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좌충우돌 강 순경의 '진짜' 경찰 이야기

경찰 실화만화 〈뽈스토리〉 출간한 강현주 경장

"만화가는 어린 시절의 꿈이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제가 경찰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됐지만,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떠올라 2007년부터 제 싸이월드 블로그에 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두 가지 모두 다 이룬 셈입니다."

경찰 근무 경력 5년째인 강현주(29 ·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 G20기획단) 경장이 2007년부터 싸이월드와 경찰청 블로그에 연재한 작품들을 한 권에 묶은 단행본 〈뽈스토리(Police Story)〉를 지난 4월 발간했다. 책 판매로 받는 인세는 전액 한국소아암어린이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여경찰 강 순경의 좌충우돌 지구대 이야기'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강 경장 본인이 근무 중 경험한 일화를 재미있게 풀어낸 것이 소문을 타면서 그의 연재만화는 싸이월드에서 누적 조회수 1백만 건을 넘어설 만큼 인기를 모았다.

경찰 만화 〈뽈스토리〉를 펴낸 강현주 경장은 경찰이 되기를 바란 아버지의 꿈과 만화가가 되고픈 자신의 꿈을 함께 이뤘다.

이 책은 저자가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에피소드와 초보 경찰관으로서 저지른 실수담을 그린 '강 순경 스토리'와 동료 경찰관과 겪은 이야기와 사건, 사고를 담은 '지구대 이야기', 경찰관들이 제보한 사연을 그려낸 '현장 스토리', 저자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경찰과 시민의 일상을 담은 '포토 스토리' 등 네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판매 인세 전액 소아암 어린이 위해 기부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지구대를 찾은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집 전화번호, 아들 전화번호도 다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평생 몸담았던 직장 전화번호는 기억하고 계셨어요. 안쓰러우면서도 존경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뵌 이후 경찰이라는 제 직업을 더욱 사랑하게 됐어요."

강 경장의 만화는 1백 퍼센트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처음에는 강 경장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그렸지만, 지금은 경찰들 사이에서 유명해져 전국 경찰들이 재미있는 사연을 보내주고 있어 소재가 바닥날 걱정은 없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경찰들의 희로애락을 강 경장이 대표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셈이다.

"〈뽈스토리〉에 나오는 경찰들이 너무 가볍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등장하는 작은 에피소드와 웃음 뒤엔 우리 경찰의 고충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작가로서, 또한 경찰로서 제 바람입니다." G

글 · 김광숙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뽈스토리〉 연재 사이트 : 경찰청 블로그 polinlove.tistory.com
강현주 경장 개인 사이트 www.cyworld.com/hanjjuworld

"인생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하다"

국방부에 100억 쾌척한 김용철 씨

"최근의 천안함 사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저의 기부가 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국가안보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순(九旬)을 바라보는 평범한 시민이 평생 모은 1백억원대의 전 재산을 국가안보를 위해 써달라며 기부해 화제다. 주인공은 경기 용인시에 사는 김용철(89) 씨. 그는 1950년대 대한수리조합(현 농어촌공사)에서 20여 년 동안 근무한 뒤 광주에서 중소 섬유공장을 운영했다. 이후 공장을 정리하면서 받은 토지보상금을 바탕으로 재산을 일궈냈다.

김 씨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다. 지금도 양복 한 벌과 닳아 해진 와이셔츠, 구두 한 켤레로 생활하고 한 끼 1만원 이상의 식사는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힘들게 모은 재산이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 국가를 위해 쓰기로 결심했다. 처음엔 학교나 재단 설립을 통해 사회에 재산을 환원하려고 고심했으나 국가안보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국방부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김 씨는 대한민국 질풍노도의 시기를 온몸으로 살아냈다.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나라 없는 설움과 전쟁의 상흔을 피부로 느꼈다는 그는 "'인생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하다'는 국가관을 확립하고 평생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국가안보를 위해 써달라며 국방부에 기부한 김용철(왼쪽) 씨가 지난 5월 2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김태영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국방부 "기부금으로 친환경 신물질 연구센터 건립"

"우리나라의 서쪽은 중국, 동쪽은 일본, 북쪽은 북한과 러시아가 있어 국가안보가 취약합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국방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국방부에 기부 의사를 밝혀왔다. 국방부는 김 씨의 뜻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기부금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친환경 신물질 연구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센터는 첨단 신물질을 연구 개발해 전자기 펄스(EMP) 체계, 초정밀 미사일 등 첨단 신무기에 적용할 전용 연구시설이다.

김 씨는 "신무기 개발 연구를 하기에는 기부금이 충분치 않으므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국방부의 지원을 희망한다"며 "연내에 기부금 집행 및 연구센터가 완료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1남 2녀를 둔 김 씨는 기부 소식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자식들이 아직 젊은 만큼 스스로 노력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언론을 통해 자신의 기부 사실이 알려지면 한편으론 서운하겠지만 이 행동을 당연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줄 것이라고 믿는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5월 25일 국방부에서 김용철 씨를 접견하면서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국가안보를 위해 기부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장관은 "김 씨가 보여준 자세는 국가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출산·육아휴직자 '대체인력뱅크' 확대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무원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맡아 처리하는 '대체인력뱅크'를 범정부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장관과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5월 26일 '대체인력뱅크 선도적 추진 MOU 체결식'을 갖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발생 때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해 휴가·휴직자의 심적 부담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나갈 것을 협약했다.

행정안전부는 공통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통합뱅크'를 운영하며, 노동부와 서울시는 각각 직업상담 및 사회복지 분야,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도 해당 분야에 대한 뱅크를 구성해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비한 대체인력 즉시 충원 체제를 갖춘다.

대체인력뱅크제도는 2005년 도입돼 중앙 6개 부처(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인권위원회)에 97명, 지방 1백59개 자치단

일러스트·남동윤

체에 3천8백83명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대체인력의 신분, 보수, 복무관리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인력 풀이 부족해 실제 활용도는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공무원 육아휴직자는 3천3백42명이었으나 57퍼센트는 대체인력을 활용하지 않았고, 출산휴가자도 3천2백99명이었으나 81퍼센트는 대체인력을 활용하지 않았다. 97명의 중앙부처 뱅크 인력 가운데 지난해 활용 인력은 33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처럼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대체인력뱅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모집하고 이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그간 대체인력은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형태로 채용돼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해 휴가 및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년 이내로 채용되는 '지원계약직'을 신설해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신설되는 계약직 운영을 활성화하고 채용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정원 외의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공고 및 장관의 승인절차를 생략토록 할 계획이다. 근무 실적이 우수한 계약직 공무원은 재채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대체인력의 전문화도 도모한다.

대체인력의 즉시 충원체제를 갖추기 위해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정부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 지원자는 희망하는 지역, 직렬, 직급 등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고, 각 기관 인사담당자는 적격자를 신속하게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 구축키로

공통업무 분야(일반직 행정직렬, 기능직 사무직렬)를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통합 선발해 각 기관이 요청할 경우 적격자를 추천 및 공급하는 '통합뱅크'도 구축한다.

통합뱅크는 기존 대체인력 미활용 규모의 30퍼센트인 연간 4백여 명으로 구성하고 활용률 등을 고려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뱅크 이외의 전문 분야는 각 기관별로 향후 6개월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예상 인원을 고려해 2배수 안팎으로 구축한다.

아울러 대체인력이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간의 의견을 반영해 뱅크에 선발된 인력을 대상으로 사무관리 실무 등의 사전교육을 실시해 원활한 업무대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 4개 부처 장관과 서울시장 권한대행(왼쪽부터)은 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발생 때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체인력뱅크 선도적 추진 MOU 체결식'을 가졌다.

신설되는 계약직 운영을 활성화하고 채용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정원 외의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공고 및 장관의 승인절차를 생략할 계획이다. 근무 실적이 우수한 계약직은 재채용을 통해 장기적으로 대체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조윤명 인사실장은 "대체인력뱅크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각 기관의 대체인력 활용률이 높아져 업무 공백이 줄어들고 휴가자와 휴직자의 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출산 장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라는 인식 아래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과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 구축을 올 상반기에 끝내고,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통합뱅크 대체인력 2백명과 노동부 직업상담직렬 대체인력 1백명을 비롯한 총 1천여 명의 대체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대체인력뱅크 선도적 추진 MOU 체결식' 행사에는 다출산 공무원, 맞벌이·신혼부부 공무원들이 초청돼 저출산 시대에 일과 가정의 균형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다자녀·맞벌이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 지원 방안 등도 소개됐다. G

글 · 이혜련 기자

나라일터 **gojobs.mopas.go.kr**

“물 한 모금 위해 소녀는 8km를 걸어야 합니다”

'최지우, 내 마음의 아프리카' 사진전… 6월 30일까지

배우 최지우 씨가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 하나인 스와질랜드에 다녀왔다. 물을 긷기 위해 왕복 8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이곳에 식수 펌프를 설치해주고, 한국에서 가져간 뻥튀기 기계로 옥수수를 튀겨주는 등 아이들과 보낸 8박9일간의 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았다.

월드비전 김수희

"웅덩이의 물을 뜨기 위해 소녀는 왕복 8킬로미터를 걸어야 합니다. 동물들이 목을 축이는 이 물이 아이들의 식수원이라니…."

남동생과 함께 사는 소녀 린델와를 따라간 최지우 씨는 웅덩이의 물을 보고 말을 잇지 못한다.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 스와질랜드 왕국은 지난 15년 동안 가뭄이 지속돼 식수 부족이 심각하다. 오염된 물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이 돌아 40세 이전 사망률이 무려 48퍼센트에 이른다. 부모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니 고아가 많다. 어린 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최지우 씨가 지난 3월 초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함께 스와질랜드 마들란감피시 지역개발사업장을 찾아가 린델와 남매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30장의 사진에 담겼다.

캐논플렉스(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리는 '최지우, 내 마음의 아프리카' 사진전에는 최지우 씨의 활동 모습을 찍은 사진 27장, 최 씨가 직접 찍은 사진 3장을 전시한다. 지난 4월 13일 방영된 다큐멘터리 〈MBC 다큐프라임-최지우, 내 마음의 아프리카〉(연출 · 오승훈) 현지 제작 중에 찍은 사진들이다.

수익금은 전액 월드비전에 기부해 아프리카 식수(食水)원 개발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최지우 씨는 "구호단체에서 설치한 식수 펌프에서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지자 민속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던 마을 사람들을 잊을 수 없다"면서 "사진전을 통해 더 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고 소망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캐논플렉스 Tel **02-6719-8700**

조영철 기자

Jack Kim

Jack Kim

1 스와질랜드 아이들은 15년 동안 계속된 가뭄과 수인성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2 최지우 씨(오른쪽)가 소녀 린델와와 물을 길러 먼 길을 걷고 있다.

3 '최지우, 내 마음의 아프리카' 사진전의 수익금은 전액 아프리카 취수사업에 쓰인다.

4 옥수수와 콩으로 연명하는 아이들. 부모를 일찍 여읜 경우가 많다.

5 최지우 씨가 맑은 물로 아이의 손을 씻어주며 다정한 말을 건네고 있다.

피터 드러커에게 배우는 38개 미래통찰

옷소매가 짧아지고 바람도 후텁지근해지는 6월. 초여름 문턱에 서니 벌써 1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고 있음을 실감한다. 새해 초에 세운 계획들은 어지럽게 흩어지고, 기분을 붕 뜨게 만드는 화창한 날씨가 굳건한 결심을 흔들어댄다. 아직 더 가야 할 1년의 나머지 절반을 위한 삶의 조언을 얻고 싶다면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가 제격.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좋은 책 선정위원들이 6월을 맞아 선정한 책 가운데 인생의 롤모델이 될 만한 인물과 관련된 2권의 책을 골라봤다.

전 세계의 최고경영자(CEO)들과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 게이츠 회장도 스스럼없이 '내게 영향을 준 최고 경영학자'로 꼽는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미래학자의 선두주자로 일컬어질 만큼 미래 지식사회를 늘 한 발 앞서 걸어왔다. 2005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폭넓은 관찰과 분석은 두고두고 회자되며 세상을 바라보는 고견이 되고 있다.

이재규 전 대구대 총장은 1992년 드러커의 책을 번역한 이래 드러커와 계속 교류해왔다. 이번에 펴낸 〈무엇이 당신을 만드는가〉에서 이 전 총장은 드러커가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었던 질문을 정리했다. '나는 어떤 식으로 배우는가' 등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했음직한 38가지 질문을 유형별로 묶어놓았다.

이 책을 추천한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는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드러커의 사상세계를 잘 풀어서 설명했다"며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진 그의 삶엔 존경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스티븐 호킹의 삶 조명한 〈스티븐 호킹〉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삶을 조명한 〈스티븐 호킹〉도 눈여겨볼 만하다. 21세의 건강한 청년은 박사학위를 받고 창창한 앞날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운동신경 세포가 파괴돼 전신이 마비되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말았다.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는 의욕적인 연구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천재 과학자이자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인간 승리자로 많은 이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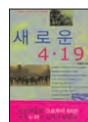
포스텍 수학과 최영주 교수는 추천사에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우리를 그가 연구한 우주로 이끌 뿐 아니라 삶의 의미와 축복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다"고 썼다. G 글 · 김민지 기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kpec.or.kr

무엇이 당신을 만드는가
이재규 지음 / 위즈덤하우스 펴냄
피터 드러커가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었던 질문들을 정리했다.
추천 이준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스티븐 호킹
크리스틴 라센 지음 · 윤혜영 옮김 / 이상 펴냄
루게릭병에 걸리고도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사랑받고 있는 스티븐 호킹의 삶을 조명했다. | **추천** 최영주(포스텍 수학과 교수)

막걸리, 넌 누구냐?
허시명 지음 / 예담 펴냄
'막걸리학교' 교장이자 여행작가, 술 평론가인 허시명 씨가 막걸리에 대한 자료를 모아 집필했다. | **추천** 손수호(국민일보 논설위원)

눈으로 하는 작별
룽잉타이 지음 · 도희진 옮김 / 사피엔스21 펴냄
대만의 저명한 사회문화 비평가이자 작가인 룽잉타이가 펴낸 에세이집. | **추천** 신경숙(소설가)

새로운 4·19
안동일 지음 / 예지 펴냄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4·19혁명의 역사적인 의미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설명했다. | **추천** 강정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의 옛집과 꽃담
이종근 외 지음 / 생각의 나무 펴냄
기존 한옥 관련서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전국 곳곳의 멋진 한옥, 그중 꽃담에 초점을 맞춰 알기 쉽게 정리했다. | **추천** 이한우(조선일보 기자)

중국, 외교관의 눈으로 보다
백범흠 지음 / 늘품 펴냄
중국 문명이 탄생한 순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의 역사가 총망라돼 있다. | **추천**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한국인 전용복
전용복 지음 / 시공사 펴냄
우리 전통의 옻칠문화를 향한 저자의 삶과 집념, 예술관을 보여준다.
추천 김춘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를 찾아서
이진우 지음 / 책세상 펴냄
니체 전공자인 저자가 원전을 인용하면서 니체가 살아온 삶과 사상을 쉽게 풀어냈다. | **추천** 김형철(연세대 철학과 교수)

온양이
선안나 지음 · 김영만 그림 / 샘터 펴냄
어린이들에게 6·25전쟁에 대해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책.
추천 서정숙(그림책 평론가), 이금이(아동문학가)

무소유

글과 그림 · 최영순

'무소유'란 아무 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富)보다 훨씬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 법정 스님

국가·세대 뛰어넘는 화합과 평화의 목소리

한일 수교 45주년 기념 〈화합 & 평화 콘서트〉

일시 6월 5일 오후 7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31-971-1855 www.ntok.go.kr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50년 이상 맥을 이어온 남성합창단이 한 무대에 선다. 1958년 창단한 한국 최초의 남성합창단인 한국남성합창단과 1954년 탄생한 일본 도시샤(同志社)대학 OB남성합창단이 그 주인공. 두 합창단은 6월 5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한일수교 45주년을 기념하는 〈화합 & 평화 콘서트〉를 연다. 통일문화예술원이 주최하고 주한일본대사관 문화공보원이 후원하는 공연이다.

한국남성합창단은 2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남성들로 구성돼 있다. 1985년 일본의 남성합창단 '도쿄 리더 타펠 1925'와 결연한 것을 계기로 해외 각지에서 공연을 펼쳐왔다. 일본 전역에 걸쳐 3백여 명의 단원을 둔 도시샤대학 OB남성합창단은 매년 5회 정도의 국내 공연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7회의 해외 공연을 했다.

한서대 음악과 김홍식 교수가 지휘하는 한국남성합창단은 '고향의 노래' '신고산타령' 등을 들려준다. 고바야시 교타가 지휘하는 도시샤대학 OB남성합창단은 '탱자나무의 꽃' '벚꽃이 떨어지네' 등을 노래한다. 이들 두 합창단은 고양오페라단 김성봉 단장의 지휘에 맞춰 '남촌' '고향의 사계' 등을 함께 부르는 무대도 마련한다.

이번 공연은 '화목하여 잘 합해짐'을 뜻하는 화합(和合)이 아니라 화합(化合)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화합(化合)은 '성질이 다른 두 개체가 단순히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해 안정된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김홍식 교수는 "시대와 국가를 초월한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적 세대차이와 국가 간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자 이번 공연을 열게 됐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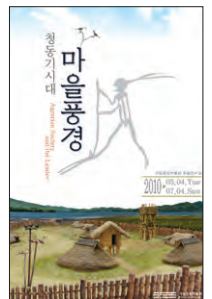
오페라 〈리골레토〉

일시 6월 7~10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VVIP석 25만원, VIP석 20만원, R석 15만원, S석 10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1~3급 동반 1인까지)
문의 02-543-2351 www.sac.or.kr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가 빅토르 위고의 희곡 〈일락의 왕〉을 바탕으로 프란체스코 피아베가 쓴 대본에 자신의 곡을 입힌 3막 오페라. 16세기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천하의 난봉꾼인 만토바 공작이 어릿광대 꼽추 리골레토의 딸 질다를 농락하면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복수극이다. 주인공 리골레타 역에 더블 캐스팅된 세계적 바리토너인 이탈리아의 프란코 지오바인과 한국의 김동규 간의 연기 대결이 기대된다.

특별전 〈청동기시대 마을풍경〉

일시 7월 4일까지 화·목·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수·토요일 오전 9시~오후 8시, 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1층 특별전시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2077-9463 www.museum.go.kr

청동기시대의 다양한 고고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당시 마을의 모습과 성격을 그려내는 전시. 올해 출토된 '여수 월내동 동검' 등 2백여 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농경의 발달, 도구의 발달, 마을의 발달, 의례, 갈등과 통합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경계이기도 한 청동기시대의 역동적인 삶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꿈을
펼쳐라!
귀하의 능력을 인정하는 육군에서 꿈을 이루세요!
대한민국 육군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육군본부
www.goarmy.mil.kr(육군모집)
전국대표 : 1588-6953
NAVER 검색창에 육군모집